

‘롯데 불똥’ 쏠대기업으로 확산

당정, 순환출자 문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책 논의
자사주 취득·사외이사·경영 승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野, 해외법인에도 상호출자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 나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소규모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6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롯데그룹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계획과, 법적·제도적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롯데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펴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 측에 오는 20일까지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에서 관련 계획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허용한다. 새누리당 김정은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도 이번 롯데그룹 분쟁 사태를 통해 재벌개혁에 나서겠다고 버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2년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

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당론으로 채택됐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5일 해외법인에도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를 의식해 고강도 사정에도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롯데 계열사 대상의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재계는 정치권에서 예정에 없던 당정협의 개최하는 등 고강도 개혁 움직임을 보이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롯데 사태의 불똥이 대기업 전반으로 뿔 수 있다는 전망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ISD 제기 ‘만수르 회사’ 세금 2400억원 물어야

대법 “조세회피 목적 설립 회사
실질 지배·관리자가 납세의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 회사가 2400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세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Hanocal Holding B.V.)이다.

이번 판결로 IPIC은 603억여원, 하노칼은 1838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IPIC과 하노칼은 이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법원이 네덜란드와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하노칼이 동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IPIC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제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 귀속의 명

의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러한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여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당하자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 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PIC은 2008년 4월 서산세무서가 법인세 58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20억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세금 귀속 주체를 하노칼이 아닌 IPIC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하노칼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고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좌영길 기자 iy97@

“청년실업 해결 위해 노동개혁 꼭 필요”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다.

이번 담화는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작년 5월 19일 세월호 관련 담화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말로 임기 절반을 지나게 되는 만큼 집권 후반기에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 중 동력을 되살려 경제를 회복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을 위해 수년째 표류 중인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대화협을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2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적폐와 비효율 해소를 위한 공공 개혁,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패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개혁,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등을 강조했다.

담화 발표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홍필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 연초 기자회견 때와 달리 국무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았다. 김의중 기자 zerg@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당정, 종교인 과세·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정부와 여당은 6일 ‘2015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및 증권거래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하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며 “(다만)거래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 거래가 침체됐을 때 고려하기로 했다. 거래를 키우려면 코스닥 (세율)만이라도

조금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 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라며 “이런 부분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 회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는 전혀 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못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하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스마트TV에서 상품 고르고 직접 결제까지 ‘삼성 페이 온 TV’ 이달 서비스

TV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 중 선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중 일부 유료 게임을 대상으로 삼성 스마트 TV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비스 시작일은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게임 출시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홈쇼핑을 시청하면서 상품 구매 시 TV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삼성 페이 온 TV’는 금융과 IT 결합(핀테크)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삼성 스마트TV 결제 서비스는 ‘갤럭시S6·엣지’에 탑재된 ‘삼성페이’ 방식과 달리, 국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이니시스를 통해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말 출시한 스마트 TV 일부 제품과 올해 나온 제품에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용 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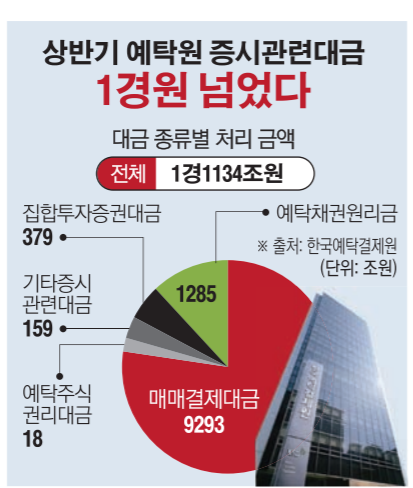
해외의 경우 미국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 등 국가별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TV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의 TV 결제 서비스는 3단계로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지급결제 정보를 입력해 등록을 마친 후 구매할 아이템을 선택한 뒤, ‘페이 나우’ 버튼 터치, 개인식별 번호(PIN) 입력으로 결제가 마무리된다. 삼성 모바일 기기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는 스마트 TV에 별도 등록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계좌정보를 옮기면 된다. 김지영 기자 gujy@

데이터 뉴스 Data News

예탁원 상반기 증시대금 37.6%↑

올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증시 관련 대금이 대폭 증가하며 1경원을 돌파했다. 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시 관련 대금은 지난해 상반기 3042조원에서 37.6% 증가해 1경113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도 15% 늘었다. 대금 종류별로는 △매매결제대금 9293조원 △예탁채권관리금 1285조원 △집합투자증권대금 379조원 △예탁주식권리대금 18조원 △기타증시 관련대금 159조원을 기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10대그룹 총수 소유 지분을 평균 0.25%에 불과

그룹	총수 소유 지분 (%)
삼성전자	이건희 2.24%
현대자동차	정몽구 1.89%
SK	최태원 0.51%
LG	구부무 0.07%
롯데	신격호 0.05%
GS	허창수 1.25%
현대중공업	정몽준 0.76%
한진	조양호 1.78%
한화	김승연 1.12%
두산	박용곤 0.00%

총수 계열사 지분을 1%도 안된다

10대 재벌 총수가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율이 평균 0.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벌닷컴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을 집계한 결과, 10명의 총수가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율은 평균 0.25%에 불과했다. 10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유지만 기자 redpill@

하루 한생각 仁山智水 (인산지수)

어진 사람은 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 ▶14면

박윤식 사장 ▶6 김범수 의장 ▶8

글로벌 이슈 ▶18~19

제3의 혁명 '시'

글로벌 리더 ▶21

야나이 다다시 회장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정치권 ‘재벌개혁법’ 드라이브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등 재벌개혁 관련 주요 법안

대표 발의자	법안명	주요 내용
김영주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 순자산액의 30%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정호준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공표
김기춘 의원	상법 개정안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이연주 의원	상법 개정안	대기업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집행인원,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일정기간 복직금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면직과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의무화

재계 “순환출자 해소, 법 강제뎌 투자위축”

“기업의 자발적 해소 독려해야”

‘롯데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이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정 기업의 상황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경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과 재벌 총수의 지분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당정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성급한 일반화’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롯데 사태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칫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가 시급한 현 경제상황에서 애꿎은 순환출자 해소에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이 순환출자를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 “순환출자는 기업 자발적으로 점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별안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건 너무 성급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이) 롯데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다”며 “특정 기업의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는 것이며, 기업활동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에 활발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인데, 투자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전경련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롯데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가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법으로 강제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소에 비용이 들어가 정작 투자에는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롯데에 무던 칼 빼든 공정위

분쟁 심해지자 뒤늦게 실태 조사 ‘뒷북 대응’ 지적
“자료제출 거부하면 벌금 부과”... ‘1억’ 실효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롯데 해외계열사의 해외 지분구조 파악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가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벌금 1억원 부과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롯데 해외 계열사 전체와 각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주식 보유 현황, 임원 명단 등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계열사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롯데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수단은 없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기업 지배구조를 제대로 파악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롯데 측에 자료를 요청한 시점도 롯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된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에는 국적 논란이 일 정도로 현재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일본 회사인 광운사와 일본롯데홀딩스가 있다. 실제 일본롯데홀딩스는 지난 3년간 310억1900만원의 배당금을, 광운사는 132억 8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60개가 넘는 대기업 집단 조사에서 해외 계열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지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새로운 순환 출자 고리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영 기자 sympark@

롯데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다시 불붙나

경영권 분쟁 영향 반재벌 정서 확산
당정, 오늘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
계류중인 공정법 개정안 처리 속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재벌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반재벌 정서를 등에 업은 정치권의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6일 신규 순환출자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다시 심사석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순환출자는 계열사들이 고리 모양으로 서로 출자하는 것으로,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의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롯데그룹의 경우만 해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자녀와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36%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롯데그룹 80개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에 달한다. 반면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등

다른 재벌그룹은 정치권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현재 각각 10개와 6개로 줄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2012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 순자산액의 30%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총액의 1배를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및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50%(상장법인 등인 경우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낮은 지분율로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수십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소수 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춘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오너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주요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수



했다. 다만 비상장사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비상장사의 규제 문제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관측이다. 같은 당 정호준 의원이 2013년 7월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당정 간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순환출자 제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 관계자는 “롯데 사태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와 상의한 뒤 당 정책위, 또는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

섞 | 지 | 았 | 았 | 다

싱글원두로 만든 균형잡힌 바디감 칸타타 싱글오리진 킬리만자로

싱글오리진 아메리카노

싱글오리진 라떼

칸타타 킬리만자로 싱글 오리진이란?

부드럽고 풍부한 맛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대표 원두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만을 사용하여 싱글 원두 본연의 개성 있는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두 커피입니다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롯데칠성음료**

〈SK그룹 회장〉 〈한화그룹 회장〉 〈LIG넥스원 전 부회장〉
최태원·김승연·구본상
‘8·15 특사’에 포함될 듯

13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경기부양 위해 기업인 복귀
 광복 70주년 사면 ‘역대 최대’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5일 시행하는 특별사면에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 관계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의 명단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인원을 통해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간 복역했으며, 최재원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모두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으며, 이번 특사에 이듬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초안에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두 아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업 전 LIG건설 부사장은 현재 복역 중인데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기업인 사면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인 특사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놓고 정부가 시급한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생각해 기업인들을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이번 특사의 규모는 수백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명단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예정된 국무회의 대신, 13일 ‘월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사 명단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태원 회장,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정부는 “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 손쉽게 상품 등록” 홍보하지만...

티몰 한국관 입점, 중소기업 ‘하늘의 별따기’

‘현저히 유명한 브랜드일 것’ 알리바바 기준 까다로워
 대기업 아니면 허가 안나...中 현지법인 설립해야 가능
 사전허가 6개월 정도 걸리고 불허이유 설명도 안해

#농식품 가공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7)씨는 알리바바그룹에서 운영하는 ‘티몰(T-mall, 티엔마오)’ 국제관에 입점하려고 문의했다가 “이랜드나 제일모직 같은 대기업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알리바바 측의 허가 요건 중 ‘현저히 유명한 브랜드일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라고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티몰 일반관 입점조차도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해야만 가능해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김씨는 “티몰 한국관 입점을 알아보니 신청해도 사전 허가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면서 “(지난 5월) 티몰 한국관을 개통했을 때 신청만 하면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티몰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한국무역

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난 5월 18일 중국 최대의 온라인마켓인 티몰에 한국 제품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한국관’을 개설했다.

티몰 한국관은 티몰에 입점되지 않은 한국 상품을 하나하나 모아서 별도 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티몰에 입점해 있는 한국기업과 브랜드 점포들을 모아 한국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장구(루트)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많은 한국 기업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의 까다로운 허가 심사로 인해 국제관 입점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티몰 입점 대행 회사인 CNK글로벌네트웍스 이재석 부장은 “티몰 국제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처음 베타서비스를 할 때는 보증금도 면제해 주고 중소기업

기업도 입점이 쉬웠다”며 “최근에는 기조가 바뀌어 (신규로 들어가려면) 사전 허가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부분 회사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중국 측에서) 불허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측에서 입점 기업 수가 늘어나자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에 손쉽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길이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상품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 ‘케이몰(Kmall)24’과 티몰을 연계해

쉽게 티몰에 입점하도록 했다. 케이몰24에 상품을 입점하면 중국의 티몰에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방식이다. 5월 기준 1200개사 1만2000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케이몰에 입점하면 판매 실적이 실감스러워 입점 철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케이몰24 상품 노출 등의 마케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티몰과 케이몰에 이종으로 수수료 내는 문제로 기업들은 입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케이몰은 매출이 안 나는 상품 위주로 진열해 놓아 입점 효과가 별로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전년 대비 42% 성장해 2013년 1조8500억 위안(약 329조 원) 규모이며, 2017년에는 4조 위안(약 7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단순한 예로 해소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박영민 기자 elee@

〈복지부 장관 내정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후배’ 정진엽·성상철 30여년 인연 화제

1983년 레지던트-인턴으로 만나
 ‘보건행정’ 호흡 잘 맞을지 주목



정진엽 내정자	성상철 이사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73학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7학번
정형외과(뇌성마비) 전공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형외과(무릎) 전공 2004년부터 2005년까지
35회 대한병원협회 재우위원장, 기획이사 등	35회 대한병원협회 회장
기타 이력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60)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성상철(6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는 남다른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 내정자와 성 이사장은 모두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다.

일곱 살 차이를 대학 때는 몰랐던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83년. 성 이사장이 서울대 의대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일하던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 정 내정자가 인턴으로 들어가면서부터다. 두 사람은 이후 1988년까지 레지던트와 인턴으로 함께 지냈다.

1992-2000년 성 이사장이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이자 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 전임강사이자 정형외과 조교수로 활동했다.

지난 2001년 11월 성 이사장이 분당서울대병원 개원준비단장을 맡고, 이듬해인 2002년 7월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오르면서 더욱 친밀해졌다. 성 이사장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있던 2002-2004년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던 정 교수를 불러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연구실장을 맡긴 것.

성 이사장이 떠난 후 정 내정자는 2008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차례 연임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을 전국적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성장시켰다. 성 이사장이 분당서울

대병원을 떠난 뒤에서도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됐다. 2010년 5월 성 이사장이 제35대 대한병원협회장을 맡아 2012년까지 일할 당시 정 교수는 병원협회 재우위원장과 기획이사, 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등으로 성 이사장의 곁을 지켰다.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던 이들은 결국 의료계가 아닌 행정직에서 또 연을 맺게 됐다. 눈여겨볼 점은 성 이사장 밑에서 함께하던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직에 내정, 사실상 상 위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 최대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집행을 책임지며 복지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당연히 수시로 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로 개편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선후배 출신이면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들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부미 기자 boom@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국 경제규모의 4분의 1인 싱가포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7배**

한경연 “규제완화·윈스톱 지원율”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한국보다 7배가량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자본 유치 성공과 실제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정부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 완화와 윈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내셔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100억 달러(약 11조7100억원)에 그쳤지만 국내총생산(GDP)이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 달러인 것

아이 돌보는 ‘아빠’ 늘어났지만...

남성 육아휴직 울췌 5% 넘어
 반기 기준도 2000명 돌파 처음
 경단녀 문제 해소엔 도움 안돼



이른바 ‘아빠 육아’가 확산하고 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내는 ‘워킹 대디’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를 넘어섰다.

6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육아휴직자)는 4만73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이 221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7%(640명)나 급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반기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1065명으로 14.7%(5262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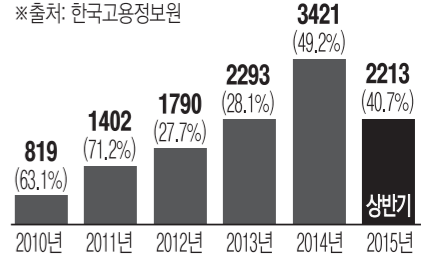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중은 5.1%를 기록했다. 5%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상반기 4.2%와 비교해서는 0.9%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2.5%), 도매 및 소매업(10.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34세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35세 이상 25-29세(15.6%)가 그 뒤를 이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매해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208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0명을 넘어섰더니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 2012년 1790명, 2013년 2293명, 2014년에는 3421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이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엔 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육아휴직자) 추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용정보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이후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유지하는 비중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휴가만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한 경우는 78.4%가 동일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지만 출산 전후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직장 복귀 후 60.1%만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책임연구원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낮은 비중을 차지해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문화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전력수요 뚝
 휴가철 기업·공장 가동 중단...평상보다 900만kW 줄어**

전국적으로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력사용량은 되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기업체와 공장 등의 전력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력 수요가 평상시보다 무려 900만kW나 감소한 6574만kW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8월 첫째 주 하계 집중휴가 기간을 맞아 산업체를 비

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는 평일 수요의 88-99% 수준인 6570-7450만kW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다만 금요일에는 평일 수준의 99%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여름에는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추가 예비전력이 넉넉해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

경제규모 대비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비교 (단위: 10억달러)

구분	한국	네덜란드	칠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싱가포르
2014년 GDP (세계순위)	1,416.9 (13)	866.4 (17)	258 (42)	888.6 (16)	384.9 (31)	308.1 (36)
투자 유치금액	2012년 9.5	18	25	19	15	57
	2013년 13	32	17	19	16	65
	2014년 10	30	23	23	16	68

*출처: WIRI(2014), IMF(2015), 한국경제연구원

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았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 사례로 글로벌소스미스트라인(GSK),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을 꼽았다. GSK는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도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아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우수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 완화와 윈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어제는 '稅폭탄' 금호아시아나 오늘은 '부당거래'

국세청서 140억 추정금 부과... 공정위는 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조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근 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140억대 추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 거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의혹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재무개선사업(위크아웃)을 앞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내부 거래액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이사회를 통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위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이후 이들

이 발행한 CP를 대한통운 등 당시 계열사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지시해 부도를 막은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 대한통운,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 계열사에 CP 매입 내역 등 자료를 입의 제출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공정위는 위크아웃 신청 결정 직후 이뤄진 계열사 간 CP발행과 매입이 위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의 부도 방

지용 거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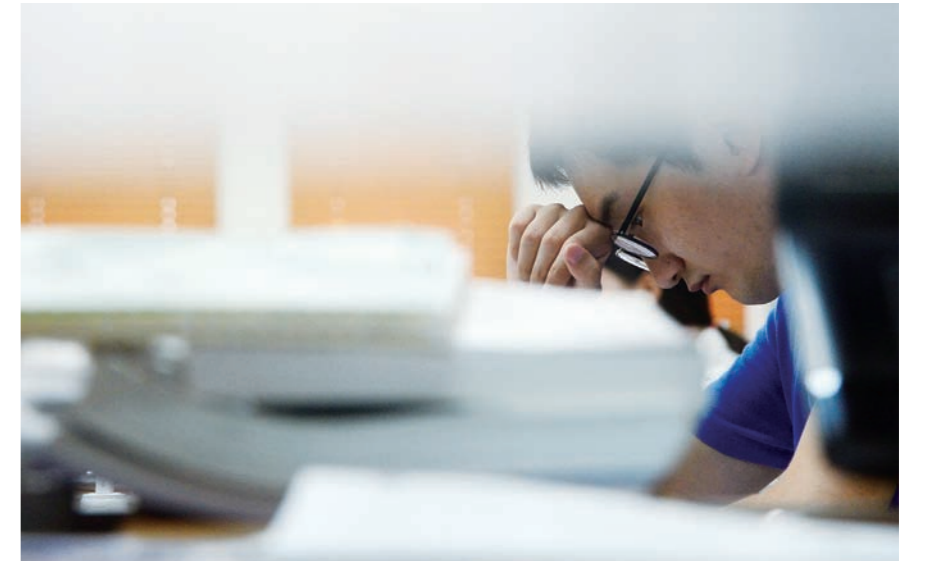
아울러 이들 계열사들이 매입한 CP가 금호산업 등의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이자 감면'으로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40억원대의 추정금을 부과받았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열대야? 취준생엔 빙하기



가마솥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임금피크제 관련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협조를 구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고교 성추행사건' 서울경찰청 직접 나선다

"사안 심각성 고려" 성폭력특수대, 교장·교사 등 4명 수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희롱 사건의 수사 주체가 격상됐다. 이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수수사대는 지난 5일 공립고교 교장 등 교사 4명의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이 사건의 수사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 해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서대문경찰

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완벽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으로 수사 주체가 변경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우리 쪽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서보다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자료와 서대문경찰서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원점에서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시교육청이 고발한 교장의 직무유기, 교사 4명의 성추행 혐의뿐 아니라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통상 성희롱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직장 징계로 끝나는 게 관행이었으나 교사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조사가 아직 이뤄지

지 않아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체적 성추행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도 처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이나 여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은 교사 4명이 여교사와 학생을 추행했는지, 교장이 추행·희롱 문제를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청 감사에서 파악된 추행 피해자는 여학생 최소 20명, 여교사 최소 8명이다. 추행과 별도로 가해 교사들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은 1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취업강패 위에 외모스펙?

기업 64% "채용때 얼굴 따진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모 중 채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은 '인상 등 분위기'(89.7%), '복수응답'(37.4%), '웃자람'(36%), '체형'(19.1%), '헤어 스타일'(11.4%) 등을 보고 있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인사 담당자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8%가 이같이 답했다

고 5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대인

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35.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자기관리가 뛰어난 것 같아서'(34.8%), '외모도 경쟁력

이라서'(29.8%), '근무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24.2%),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서'(22.5%),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쳐서'

(16.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채용 시 외모를 보는 직무 분야로는 '영업/영업관리'(50.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비스'(43.3%), '마케팅'(21.4%), '인사/총무'(21.2%), '광고/홍보'(21%) 등의 순이었다.

또, '남성'(6.2%)보다는 '여성'(40.3%) 채용 시, '경력'(8.4%)보다는 '신입'(37.4%) 채용 시 외모를 평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유혜은 기자 euna@

롯데월드타워에 대형 태극기



광복 70주년을 열을 앞둔 5일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임원 퇴직금은 전액 압류 가능"

근로자 보호서 제외... 퇴직연금 소송 원고 패소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채권자가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퇴직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오세씨가 한국의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외환은행은 오세씨가 청구한 6억5722만원 중 1억137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재판부는 "오세는 대표이사 겸 최대주

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퇴직금 여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라며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며 오세씨의 퇴직금 전액이 압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1심은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등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채권은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3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법원 "종교 목적 아닌 시설은 과세 대상"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건물을 취득한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복지·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검찰 '조현아 수감편의' 구치소 관계자 조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편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됐던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제 구치소 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24일 알선수제 혐의로 긴급체포된 연모(51)씨의 구속기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로 연장했다. 연씨는 조 전 부사장 측에 구치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엔터가 정비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씨의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부속 의원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고, 연씨가 실제로 청탁을 제안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김은총 기자 kec@

"탐승 전세기 폭파하겠다"

이희호 여사 협박범 IP 추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협박 용의자가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미국 구글사를 통해 지메일로 협박 메일을 보낸 이의 IP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구글은 테러 등과 관련된 사건에는 신속

히 자료를 공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전날 한국 경찰의 요청에 빠르게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아 경찰은 IP 정보 이외의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IP 정보를 토대로 국내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협박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협박 문건을 받은 언론사 기자들의 협조를 얻어 협박 메일과 관련된 내용을 확보해 IP 추적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접속한 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아직 신원이 특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한국호텔서 전기주전자에 화상"

반한운동까지 벌인 대만 연예인 패소

'전기 주전자 관리소홀로 화상을 입었다'며 국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반한운동까지 벌였던 대만의 인기 연예인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 쿠오 추 쥬(郭子乾)씨가 서울 라마다 호텔 등을 운영하는 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쿠오 추 쥬씨는 2012년 1월 서울을 방문했다가 투숙한 남대문 라마다호텔 객실에서 부상을 당했다. 호텔에 비치된 전기주전

자로 물을 끓였는데, 가열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쿠오 추 쥬씨는 "주전자 아랫부분에는 물을 가열하는 가열판만 있었을 뿐, 밑판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7월 호텔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주전자 본체와 가열판 사이 실리콘링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상태로 물을 끓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쿠오 추 쥬씨가 국제 사법에 따라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영길 기자 iy97@

전관예우 끝판왕 '전화변론' 막는다

서울변회, 법률개정 검토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사유 요지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 건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수는 총 5명이다. 이 중 4명은 과태료 200만원, 나머지 1명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지난 2011년 시행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변호사법 31조 3항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을 퇴임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실제 법적 처벌 규정은 없다. 변협의 징계가 전부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졌으나 과태료 200만원은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변

호사협회 김한규 회장은 "이미 전관예우가 법조계 사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변회가 나섰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물리치게 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화 변론'을 막는 조항도 포함된다. 전화변론은 전관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이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진부 있는 법관에게 직접 전화해 변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사례다.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므로 전관예우 방지법도 피해갈 수 있다.

김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1차로 처벌하고 변협의 2차로 징계할 수 있다"면서 "전관 변호사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관예우를 애초에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총 기자 kec@

은행권, 하반기에도 채용 늘린다

“정부 일자리 창출 부응...규모 최대한 확대”
최대 2배까지...경단녀·시간제근로자 등도

은행들이 하반기 대규모 신규 채용에 나선다. 상반기 인력 채용을 마친 은행들도 채용 규모를 확대해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내주 채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자회사들과 인력 현황 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채용 여력 등을 협의중이다.

이미 상반기 채용을 실시한 신한·국민·우리·기업은행 등도 올해 채용 규모를 늘려 하반기 추가 채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인 만큼 농협 금융도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BNK금융지주도 주요 계열사에서 총 400여명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230명, 경남은행 140명, BNK투자증권 10명, BNK캐피탈 10명, BNK저축은행 10명을 채용한다. BNK금융은 오는 10일, 11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은행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의 2배 가까운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중 하반기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경력단절녀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 150명을 채용한 것을 포함해 올해 총 800명을 뽑는다. 지난해 355명이었던 신규 채용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린 규모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590명을 채용했으

2015년 주요 은행별(금융지주) 채용 현황

은행(지주명)	규모 및 일정
신한은행	고졸 및 대졸 일반직 350명,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70명, 경력단절여성 280명 등 올해 1000여 명 채용(신한금융지주 주요 계열사 8개사 총 1350여 명)
국민은행	상반기 경력단절녀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 150명 포함 올해 총 800명
우리은행	상반기 정규직 직원 20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0명 각각 선발, 경력단절 여성 330명 연중 수시 채용 올해 총 800명을 총원
기업은행	하반기 신입직원 400명 채용, 9~10월 중 채용 공고 예정
BNK금융지주	하반기 부산·경남은행 등 주요 계열사 총 400명 채용
농협금융지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조합원, 금융지주 계열사 등 이달 중 채용인원 확정, 전년보다 늘어날 가능성 높음.

나 올하는 채용규모를 대폭 늘려 고졸 및 대졸 일반직 350명,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70명, 경력단절여성 280명 등 1000여 명을 채용키로 했다. 은행을 포함한 신한금융지주 주요 8개 규모는 지난해 850명에서 1350명으로 500명 확대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지난해 채용 규모의 2배 수준인 800명을 뽑는다. 상반기 정규직 직원을 20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0명 각각 모집하고 경력단절 여성 330명

을 연중 수시로 뽑아 올해 총 800명을 총원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118명 채용 이후 올해는 채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외환은행과의 통합작업이 마무리된 후 하반기 신규채용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방향으로 정하고 기업들에게 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하반기 신용 채용에 나서는 금융회사 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우림 기자 hura@

한화손보 박윤식 號 저침없는 실적 질주



작년 1년만에 흑자전환 이어
올 상반기 당기순익 225%↑
“장기위험손해율 감소 주효”

한화손해보험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취임한지 2년이 지난 박윤식(사진) 한화손보 사장이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이 본격적인 실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5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5.7% 급증했다. 매출액(원수보험료)은 5.4% 증가한 2조2267억원을 거뒀고 영업이익은 716억원으로 137.9% 증가했다.

한화손보의 실적 개선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지난 2013회계연도 534억원의 손실실을 기록했던 한화손보는 지난해 1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1년만에 '타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이후 올해 1분기 1분기 매출액 1조3908억 원으로 전년동기 1조2741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은 20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5억원에 비해 1273%나 급증했다.

올해 2분기 역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증가한 9060억원, 영업이익은 64% 늘어난 424억원, 순이익은 126% 급증한 38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손보의 실적 개선은 박윤식 사장의 경영혁신 성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핵심 이익지표인 장기위험손해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6월 한화손보에 취임한 박윤식 사장은 한화손보의 경영정상화 구원투수로 선발됐다. 취임 직후 박 사장은 혁신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현장 경영을 바탕으로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전력

을 다졌다. 이처럼 실적이 개선되자 한화손보의 주가 역시 화답하고 있다. 올해 1월 4500원대에 불과하던 한화손보의 주가는 지난 6일 매출액 1조3908억 원으로 전년동기 1조2741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이처럼 실적이 개선되자 한화손보의 주가 역시 화답하고 있다. 올해 1월 4500원대에 불과하던 한화손보의 주가는 지난 6일 매출액 1조3908억 원으로 전년동기 1조2741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DGB대구은행 내달 1000억 '코코본드' 발행 자기자본비율 0.34%p 올라

DGB대구은행이 내달 1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한다.

안정적인 자본비율 유지와 자본적정성을 위한 발행으로 10년 만기 일시상환에 상각 조건이 부여되는 후순위채형이다. 다음달 중 발행 예정으로 코코본드 발행이 성사되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13.68%(3월말 기준)에서 0.34%포인트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코본드는 바젤III 체제에 따라 도입된 신종증권으로 이전까지 은행의 주요한 자본확충 수단인 후순위채가 바젤III에서는 은행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대체 자본확충 수단으로 도입된 신종금융상품이다.

즉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는 특정 사유가 발생되면 파산 전이라도 원리금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채권이며,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한다.

은행권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III 규제 시행에 따라 BIS 비율 상승을 위한 대응 조치로 적극 발행 중에 있다.

김우림 기자 hura@

“인도네시아에 도서관 지어주고 올게요”



신한카드의 사단법인 해비타트와 함께 제5기 아름다운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을 8월 5일부터 14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 이 봉사단은 열흘간 인도네시아 보고로 센톨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름인도서관'을 구축하고 현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5일 출국 전 봉사단 대학생들과 인솔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카드

한국금융·다음카카오 맞손... '인터넷은행 1호' 도전장

컨소시엄 구성 내달 예비인가 신청
현행법 따라 지분50%·10%씩 보유

한국금융지주와 다음카카오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6일 금융권 및 IT업계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다음카카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을 준비중이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을 거느린 금융지주회사다. 우선 한국금융지주는 인터넷은행 지분은 현행법에 맞춰 지분 50%를 가진 1대 주주가 되고 다음카카오는 10%, 기타 IT업체들이 30% 지분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0%는 은행들과 협의의 진행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 은산분리법상 다음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은 금융위 승인을 전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4개 은행은 해당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받고 최종적으로 참여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금융지주 외에도 인터넷파크도 1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며, 마래에셋증권과 KT도 독자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NH농협은행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중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메리츠금융, 두산캐피탈 인수 우선협상자

지분 62% 확보... 10월 마무리
“여신금융부문 성장동력 발굴”

메리츠금융지주가 두산캐피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5일 두산중공업 국외 법인 등이 소유한 62%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 대금은 70억원이며, 정밀 자산실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인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건설·산업기계 리스

에 강점을 보유한 두산캐피탈을 인수해 여신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두산캐피탈을 인수할 경우 메리츠캐피탈과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환경에 따라 메리츠캐피탈과의 합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는 “두산캐피탈에 대한 철저한 자산실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명 기자 lmj@

이재영 DGB캐피탈 신임 CEO



DG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DGB캐피탈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영(사진) 전 GE캐피탈 부사장을 내정했다. 이재영 신임 대표는 연합캐피탈 영업본부장과 우리카이앤설 전무 등 캐피탈업계

임원 8년 등 여신전문업 25년의 전문 경영인이다.

영업, 관리, 기획 등 캐피탈 CEO로 필요한 경영 역량을 충분히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재현 기자 nts0118@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장사를 하려하는가? 가게를 열고 싶은가?

장기불황에도 승승장구하는 성공전략

일본 외식 벤치마킹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장사의 비밀

일본 최고의 장사꾼들

글·사진 이영호 | 248p | 15,000원

그들만의 성공전략 엿보기

1. 낮과 밤의 간편을 다르게 만든다
: 시간대에 따라 유동 인구의 나이, 스타일, 선호하는 바가 다르다.
2. 시내가 아닌 고객들이 사는 곳에 가게를 연다
: 월세가 비교적 저렴하고, 개성 있는 가게를 열 수 있다.
3. 추억을 판다
: 경제가 어려울 땐 추억으로 위안을 삼고, 경제가 좋을 땐 추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즐긴다.
4. 물건이 아닌 장소를 판다
: 물건은 넘쳐나고 손님들의 지갑은 얇다. 대신 장소를 제공하라.
5. 사람들은 불편하고 귀찮다고 여기는 곳에 돈을 쓴다
: 햇반, 식혜 음료수, 씻은 쌀, 반죽 양배추 등을 떠올려보자.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LIG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으로 새 출발합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무배당
KB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밝고 크게 빛을 내는 희망처럼,
 LIG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 큰 안심을 드리는 국민의 희망파트너가 되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제 2015-2084호(2015.7.27)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 손해보험

‘뉴 삼성물산’ 대장정 끝... 주식매수청구권 마감

삼성물산 5만7200원... 합병 마지노선 1조5000억 밑돌아
주주들 세금부담 크자 행사가격 낮춰... 순환출자 고리 단순화

‘뉴 삼성물산’을 향한 73일간의 대장정이 6일 마무리됐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은 이날 오후 양사 합병의 마지막 관문인 일반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마감했다. 앞서 한국에 탁월계원은 지난 5일까지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했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기 주식을 회사에 사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물산 5만7234원, 제일모직 15만

6493원이다. 제일모직은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높았다. 반면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 5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0.69% 하락한 5만7200원에 거래를 마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밑돌았다. 그러나 증권가는 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만큼 미래 가치 측면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이번 합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더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일정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5월 27일 엘리트,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6월 4일	엘리트,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 공시, 주주제안서 발송
6월 9일	엘리트,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6월 10일	삼성물산, 자사주 5.76%(899만주) KCC에 매각 발표
6월 11일	엘리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일모직·삼성물산 기업결합신고 승인
6월 30일	제일모직, 긴급 기업설명회(M) 개최 주주친화 정책 발표
7월 1일	법원,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엘리트 측 영고)
7월 3일	의결권 자문기관 ISS,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권고
7월 7일	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엘리트 측 영고)
7월 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합병 관련 회의, 내부적으로 찬성 결정
7월 16일	법원, 엘리트가 낸 가처분 신청 기각(엘리트 측 상고),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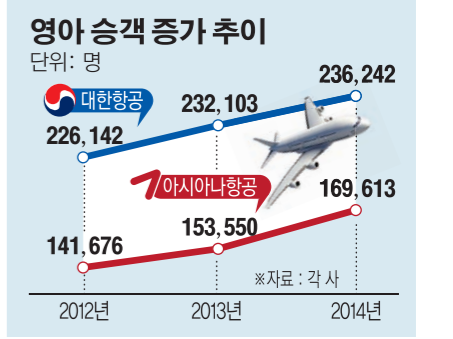
주들의 세금 부담도 대량의 주식매수 청구를 막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장외거래에 해당해 주시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내국인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장내 거래 시 매도금액의 0.3%인 증권거래세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에

는 0.5%로 높아진다. 삼성물산의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매수 청구 시 세금으로 인해 실익보다 손해가 많은 셈이다. 삼성물산 측은 6일 오전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한 것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물산은 이날까지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대금을 오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5월 26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획 발표 이후 톨리코스터를 탔다. 외국 투기자본인 엘리트 매니지먼트가 7.12% 지분을 앞세워 합병에 반기를 든 후 여론전, 소송전을 앞세워 전방위로 압박했다. 결국 지난달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반 표 대결을 펼치기도 했지만, 삼성물산 측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한편, 다음달 1일 새로운 삼성물산이 탄생하면 삼성그룹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진행해온 사업재편도 대부분 마무리된다. 현재 제일모직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F→제일모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도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간 단해진다. 장효진 기자 js62@



항공업계 떠오르는 '영아' "영아·반려를 잡아라"

항공업계 신(新) 수요로 만2세 미만 영아와 반려동물이 급부상하고 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2세 미만 아기 동반 승객 총수는 최근 3년간 10% 이상 증가했다. 대한항공은 영아 승객수는 2012년 22만6142명에서 2014년 23만6242명으로 5% 가량 늘었고,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14만1676명에서 16만9613명으로 무려 20% 급증했다. 아기를 동반한 영아 승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항공사들의 서비스들도 다양해졌다. 대한항공은 영아를 동반한 승객을 위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담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한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유아용 기내식(이유식), 안전의자, 요람, 아기대는 물론 전용 카운터, 영아용 수화물 추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해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최근 탑승률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항공 수요층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만 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탑승하며 전년 대비 4% 가량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실어나른 반려동물도 1만218마리로 전년 대비 47% 급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종류와 무게에 따라 운송방법이 달라질 뿐 아니라 그 수도 제한돼 있다"며 "사전 예약 동물 운송 확인, 검역증명서 구비는 물론 여행 국가 반입 가능 여부 등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범수 의장 '성장전략' 기술우수 벤처 M&A

(다음카카오)

자회사 통해 올해 8곳 인수... 창업생태계 구축도 한몫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이 벤처 M&A(인수합병)를 통한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만 다음카카오와 투자전문 자회사인 케이벤처그룹이 인수한 벤처기업은 8곳에 이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이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 출범을 계기로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거쳐 M&A를 적극 구사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김 의장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또 다른 궁극적인 이유는 김 의장이 추구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이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인프라를 보유한 벤처에게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다음카카오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김 의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기 때문이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5월 발표한 특연을 인수 건이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국민내비' 김기사를 제작 서비스하는 특연을의 지분 100%를 626억원에 인수하면서 시

장의 반향을 불러왔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17개 대기업 총수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람직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당부하며 바람직한 사례로 다음카카오의 특연을 인수를 언급한 것도 화제가 됐다.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아이디어 또는 인력만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거쳐 특연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를 했다는 점이 회자된 배경이다. 김 의장이 사재를 털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케이큐브벤처스' 설립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 3월 다음카카오의 자회사로 편입한 케이큐브벤처스는 아이디어와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 투자한다.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총 52개 스타트업에 총 250억원을 투자했다. 1월 다음카카오가 자본금 1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성장한 벤처를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신형 K5·쏘나타 힘으로... 중형차 '씽씽'

SUV에 밀려다 신차효과로 약진
지난달 5개사서 1만8624대 판매
전체 중 16.8%... 울 들어 최고치

신형 K5와 2016년형 쏘나타의 활약에 힘입어 중형차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동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밀려 부진했던 판매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사의 중형차 내수 판매는 지난달 총 1만8624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비중의 16.8%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앞서 지난달 15일 기아차 임원진은 신

형 K5와 쏘나타의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중형차의 황금기를 예고한 바 있다. 국내 시장에서 중형차 판매는 2010년부터 SUV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10년 평균 25.8%였던 중형차 판매 비중은 매년 하락을 거듭한 끝에 올해 4월에는 14.7%까지 떨어졌다. 반면 RV는 2010년 20.8%에서 올해 41.1%로 급증하며 대조를 보였다. 중형차 판매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14.9%에서 16.3% 사이로 머물렀으나,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평균치인 17.0%에 육박했다. 업계관계자는 "2세대 신형 K5와 2016년형 쏘나타 등 중형 신차의 출시에 따라 중형차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5는 지난달 6447대가 팔려 베

스트셀링카 10위권에 8위로 진입했다. 이 중 신형 K5는 출고 1주일만에 4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K5 판매실적을 이끌었다. 17디젤, 1.6터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신형 모델도 라인업을 확대한 2016년형 쏘나타의 출시도 중형차 비중 확대에 기여했다. 쏘나타는 7월 한 달간 8380대가 판매돼 베스트셀링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선 중형차의 약진이 하반기에 도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5의 계약대수가 6월 말부터 진행된 사전 계약을 포함해 지난달 말까지 총 1만1000여대를 기록한데 이달부터 판매가 본격화되면 중형차 판매비중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범근 기자 nova@

LGU*, 내달부터 모바일 카드 발급·결제



LG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함께 유니온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내달부터 LG유플러스 및 KB국민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유니온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부터 중국과 국내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 테스트를 8월 내 완료할 계획이며, 9월 초 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LG유플러스 및 KB국민카드 고객들은 내달 중국 방문 시 중국 내 500만여개 유니온페이 결제 단말기에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근거리무선통신 방식(NFC 방식)의 모바일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케이블TV 신사업 '진공상태'

IPTV 이통3사에 밀리고 'N스크린' 수익성 적을듯

케이블TV 업계가 이동통신 3사의 인터넷TV(IPTV)에 크게 밀리고 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신사업 진공상태에 빠졌다. 6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케이블TV방송 가입자는 1457만 1000여명으로, 지난 1월 보다 6만2000여명이 줄었다. 반면 모바일 결합상품을 필두로 한 통신 3사의 IPTV 가입자수는 지난 2분기보다 약 196만명이 늘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마땅한 돌파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CJ헬로비전과 씨엔엠, 울산·전북·제주 등 9개 권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통합 N스크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통신 3사의 모바일IPTV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인데, 이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일 뿐 수익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렌탈사업에까지 뛰어 들었다. 1

인가구에 PC나 TV 등을 빌려주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CJ헬로비전은 2014년 7월부터 '헬로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 LED TV부터 UHD TV,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등 생활가전을 헬로tv나 헬로인터넷, 헬로집전화 등 CJ헬로비전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대여해 준다. 티브로드와 현대 HCN도 비슷한 방식의 렌탈 사업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출누수를 막기 위한 방편일 뿐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국내 렌탈 시장이 10조원에 달하지만 대기업부터 가전제품 중소기업들까지 줄줄이 뛰어들어 상대라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동등결합제도를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통신망,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제공 대가를 어떻게 책정할지, 가입자 구분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성제 기자 psj@

삼성 "2분기 스마트폰 인도 시장점유율 40% 돌파"

"경쟁업체와 격차 더 벌어"... 타이젠폰 'Z1' 누적판매 100만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서 밝힌 삼성의 인도 점유율 24.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4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갤럭시 A8' 공개 행사에서 아심 와르시(사산) 삼성전자 인도 IT모바일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시장조사기관 GfK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심 와르시 부사장은 "올 6월 중에 자사 점유율이 40%를 돌파했다"면서 "삼성이 올해 1월부터 6개

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더 벌렸다"고 말했다. 인구 12억여명,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세계 3위에 달하는 인도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중국에 이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현지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다. 현지업체 마이크로맥스와 인텔릭스는 삼성에 이어 점유율 2위와 3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지 제조사 라바 역시 스마트폰 점유율 5위에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특히 마이크로맥스는 지난해 3분기 삼성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주력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저가형 모델 타이젠폰 'Z1'을 앞세워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Z1은 인도 누적 판매량 100만대를 넘기며 2분기 인도에서 팔린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중소 수출증가율 1.3% 평균보다 4%p 밑돌아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3%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6.6%)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5월(누적기준)까지 전년 동기대비 6.3%나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9년 21.1%에서 2014년 18.0%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는 17.7%로 추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을 줄여 자체 생산하는 대신 소비자 수입은 늘리는 등 세계교역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단순 임가공무역을 역제하며 중국 전체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5년 41.5%에서 2014년 26.8%로 크게 하락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이어 중소기업 수출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격경쟁력의 저하를 꼽았다. 국내 중소기업은 그동안 가격경쟁력에 의존해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엔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코트라 조사가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지수는 2011년 52.7에서 2013년 49.6으로 기준치인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4년 48.3, 2015년 상반기 47.4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세계교역 침체, 엔저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수출지출 수단 확대만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4세대 플래그십...한샘, 토털 인테리어 가속

‘국내 최대규모’ 대구 범어점 문열어
침실부터 생활용품까지 윈스톱 쇼핑
다양한 패키지·콘셉트룸 갖춰 눈길
“도심형 매장 확대...20곳 이상 오픈”



한샘 강승수 사장이 5일 한샘플래그십 대구범어점에서 기자들에게 매장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샘

한샘이 향후 플래그십을 20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토털 홈인테리어 업체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 지속적으로 플래그십 매장 규모 확대와 고급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제품구성 다양화 측면에서 생활용품 매출 비중도 최대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강승수 한샘 사장은 5일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한샘플래그십 대구범어점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구범어점은 기존 플래그십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매장이고, 1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고객들이 침실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한꺼번에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플래그십 대구범어점은 연면적 9200㎡에 달한다. 가구와 생활용품 등 인테리어 용품은 물론, 베이커리 카페, 키즈룸, 수유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인테리어전시장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합친 형태다. 이 플래그십은 13개의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73개의 ‘콘셉트룸’ 등을 통해 한국인의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선보인다. 고객들이 체

험하면서 직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샘은 최근 이 같은 도심형 프리미엄 플래그십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향후 플래그십을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로, 우선 올 연말까지 수원점 오픈을, 내년 1분기엔 강북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강 사장은 “대구는 국내 3대 광역시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인테리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플래그십을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래그십은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보급화시키고,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구할 예정”이라며 “구조적으로 도심 안에 있어야 하는 만큼, 매장 확보가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활용품 비중을 늘리고, 욕실용품을 보강하는 등 상품구성의 다양화도 꾀한다. 한샘플래그십이 전반적인 쇼핑이 가능한 ‘토털 홈인테리어 쇼핑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다. 강 사장은 “현재 전체의 15~20%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생활용품도 앞으로는 30~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빠져 있는 욕실용품의 경우도 향후 꾸준히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샘플래그십은 1997년 1세대를 시작으로

4세대까지 이어져왔다. 과거 플래그십이 단순한 유통채널이었다면, 4세대 플래그십은 한샘이 지난 40여년간 연구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강 사장은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이 이 같은 ‘한국스러움’을 강조했다. 실제 대구범어점의 경우에도 곳곳에 강 사장이 강조한 한국적인 형상들이 배치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강 사장은 “앞으로 한국적인 이미지나 형상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관련 인테리어 제안을 늘리면서, 한샘이 관련 부문에서 가장 앞장서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독일 프리미엄 캡슐커피 치보 그랑 클라세 ‘카우카’ 3종 출시

독일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치보(Tchibo)가 그랑 클라세 라인인 카우카(Cauca)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콜롬비아 남서부 지역인 카우카는 화산과 높은 산이 위치해 있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적도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 일정한 햇빛으로 토양이 비옥하다. 더욱이 밤과 낮 사이의 온도에서 매혹적인 대조가 이뤄져 카우카 셀렉션의 독특하고 우수한 맛을 만들어냈다. 시트러스 향이 가미된 과일향의 아로마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며 커피 강도는 4이다.

또 카우카는 콜롬비아 카우카 지역 단일 원산지로 생산된 100% 아라비카로 공정무역인증 받은 치보 캡슐커피이다.

올해 치보의 두 번째 그랑 클라세인 카우카는 처음으로 3종 셀렉션으로 출시됐으며, 구성은 에스프레소 카우카 마두라, 카페 크레마 카우카 그라노, 필터커피 카우카 코르비에다.

치보는 카우카 셀렉션 출시를 기념해 카피시도 공식블로그(http://cafissimo.blog.me/)에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 티켓을 제공한다.

치보 카피시도 캡슐커피 머신 및 캡슐커피는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공식 쇼핑몰 카페57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통신사 ‘반려견 페스티벌’이 베낀 것?

스타트업 폴랑폴랑 ‘아이디어 도용’
해당 통신사 “보편적 내용...취지 달라”

여름철 물놀이 콘셉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반려견 페스티벌’이 최근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행사를 처음 기획한 한 스타트업이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의 행사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반려동물과 물놀이를 함께하는 콘셉트와 프로그램 일부를 도용했다는 것인데, 해당 대기업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물행동심리연구소 폴랑폴랑(이하 폴랑폴랑)이라는 스타트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이 2013년부터 자체 진행해온 ‘반려견 워터 페스티벌(일명 개리비언 베이)’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동일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랑폴랑과 아이디어 도용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대기업은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행사는 이통사가 오는 8월 개최하는 ‘개강스 티 펫 인 서울(T Pet in Seoul)’ 이벤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인 ‘티펫’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자리다. 폴랑폴랑이 2013년부터 진행해 온 반려견 워터페스티벌과 비슷한 콘셉트의 행사다. 이에 폴랑폴랑 측은 행사 아이디어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콘셉트는 물론, 행사 프로그램 일부까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폴랑폴랑은 전체적인 행사 콘셉트와 별개로 ‘폴랑 버블’, ‘폴로링 바’, ‘반려견 파라솔’, ‘글램핑’ 등의 프로그램들은 도용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폴랑폴랑 관계자는 “2014년 해당 대기업에 페스티벌을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미팅 과정에서 행사 운영과 아이디어 자료들을 제공했었다”면서 “하지만 대기업 측의 무리한 판촉 요구로 인해 합의가 무산됐고 결

폴랑폴랑	타이틀	개강스 A11통사
반려견 워터 페스티벌 (개리비언 베이)	개강스	개강스
개들을 위한 개들에 의한 개들의 페스티벌	슬로건	개들을 위한 개들에 의한 개들의 바깥스
폴랑버블		버블머신
폴로링 바		볼볼
반려견과 함께하는 글램핑		건축과 애견이 개인
포토볼 포토존		파라솔에서 누리는 휴식
SNS 이벤트	프로그램	플라로이드 사진 서비스
수영, 폴장 워터 슬라이드		SNS 이벤트
재즈콘서트		대형물장 및 놀이시설
반려견 교육 클래스		뮤직콘서트
		애견 행동교정 클래스

국 단독 행사로 진행하게 됐는데, 올 여름 해당 기업에서 당시 우리가 제공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무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들은 해당 사업이 회사의 사활을 거는 주력 아이템인 만큼 타격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우선 배려의 미덕을 보이는 것이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신사 측은 폴랑폴랑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폴랑폴랑 측의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전체 부서가 공유하지 않았던 만큼 인지할 수 없었고, 관련 아이디어도 보편적인 것이어서 도용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행사 취지도 폴랑폴랑 측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대·중소기업 간 아이디어 도용 문제의 공론화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들은 해당 사업이 회사의 사활을 거는 주력 아이템인 만큼 타격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우선 배려의 미덕을 보이는 것이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기부전 치료제 ‘휴가철 반짝 특수’

“가짜약 많이 유통...정품 복용해야”

8월 들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제약회사들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계절적으로 여름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만큼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의 매출 신장이 제약사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제약업계 및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주요 발기부전 치료제의 매출이 휴가철을 앞두고 다른 때보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발팔(이하 성분명 실데나필)’의 경우, 매년 6월과 7월 당개는 5%까지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16억8000만원대를 기록한 매출이 다음 달인 7월에는 19억5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19억원 초반대 매출이 20억원으로 늘어났다.

화이자사의 ‘비아그라(실데나필)’ 역시 2014년 6월 9억 원대였던 매출이 7월 들어서는 10억원대로 5%가량 증가했다. 또 릴리의 ‘시알리스(타다나필)’도 2013년 6월 17억6000만원에서 7월에는 19억9000만원으로, 이어 2014년 6월에는 18억2000만원에서 7월 19억50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업계에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달콤한 휴가를 즐기 위한 발기부전 환자들의 처방 릴레이가 실력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함량이 일정치 않은 가짜 약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반드시 정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페스티벌
주최한 한샘플래그십

반려견 페스티벌
주최한 한샘플래그십

피곤해도 함께하는 멋있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SMART 비타민을 더해 더욱 강력해진 비맥스 골드

비타민B는 물론 아연과 비타민D까지! 생체 이용률이 높고, 흡수 빠른 활성형 비타민 비맥스 골드로 건강하게 빛나는 오늘을 경험하세요!

활성형비타민
벤토티아민
50mg

칼슘흡수 및 뼈 건강에 효과
비타민D
1000 IU

아연의 보급
산화아연
30mg

피로해소를 위한
비타민C
200mg

광고문의: 1289-17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SMART 기능성비타민제
비맥스 정
골드 B-max Gold tab.

업무용 메신저 '잔디'로 '애플 구글' 꿈꾼다



다니엘 찬 토스랩 대표

설립한 지 1년 만에 한국·일본·대만 등 3개국에 사무실을 두며 글로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4명이 창업해 같은 기간 동안 직원 수는 50명으로 늘었다. 직원들은 한국을 포함해 대만·미국·캐나다·뉴질랜드·영국·싱가포르·중국 등 8개 국가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국적 기업 모양새다.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 메시징 플랫폼 '잔디'를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이다.

클라우드 기반 그룹 메시징 플랫폼
설립 1년 만에 한·일·대만 3개국 진출
구글 드라이브 등 외부 서비스 연동도
오픈베타 거쳐 올해 정식서비스 론칭



다니엘 찬 토스랩 대표가 서울 역삼동 토스랩 본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택현 기자 holj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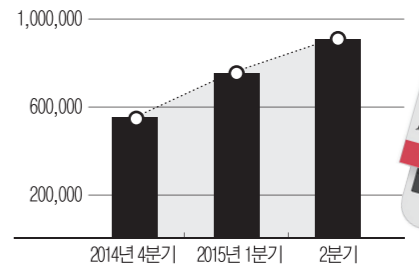
토스랩은 지난해 10월 소프트뱅크 벤처스, 체투릭 벤처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등으로부터 21억원의 초기 투자를 받았다. 이어 5월 열린 스타트업 콘퍼런스 비글로벌 2015에서 우승하며 펄픽 벤처스로부터 25만 달러를 우승 상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번 토스랩을 이끌고 있는 다니엘 찬 대표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창업자다. LA에서 출생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해 온 부모님의 영향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핸드폰 가게 직원부터 부동산 컨설턴트, 보험 설계사, 주식 옵션 트레이더 등 다양한 경험을 해 온 그는 지난해 한국에서 토스랩을 창업했다. 찬 대표는 "기존의 그룹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사용성이 뒤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용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내에서 업무에 최적화된 메신저를 서비스하기 위해 토스랩을 설립했다"고 창업 이유를 밝혔다. 찬 대표가 여러 국가 중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은 와튼스쿨 동문이자 친구인 신현성 대표의 영향이 컸다. 투자 전문가로 일하던 찬 대표는 신 대표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들렀다가 스타트업 설립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당시 실리콘

밸리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던 'Slack'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시아에 맞게 도전할 생각인데, 같이 시작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찬 대표는 현 창업 멤버인 이영복 COO, 최영근 CTO를 만나 생각과 비전에 공감해 함께하게 됐다. 찬 대표는 "잔디가 한국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 합류했다"며 "제품보다 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창업 멤버들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잔디는 아시아 직장인들의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기업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지향한다.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외부 서비스와 연동을 지원한다. 에버노트, 지라, 깃헙, 칸플루언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올해 안에 추가할 계획이다. LA와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찬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 벤처캐피탈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팀과 비전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고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이라며 "검증되지 않

은 상태라면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찬 대표는 직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까. 그는 자신 있게 문제없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직원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 한 가지 비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이라며 "팀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라고 비결을 밝혔다. 현재 잔디는 오픈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정식 서비스를 론칭하고 이후 1~2년 내에 동남아 시장도 진출해 현재 한국·일본·대만 외에 동남아 3개국 정도를 선정해 동시에 지사를 오픈한다는 목표다. 찬 대표는 "개인용 메신저와 차별점을 두고 조직도나 전자결제를 넣는 등 잔디만의 강점을 살릴 것"이라며 "한국과 대만에서 업무 협업 툴 시장을 이끄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직원이 50명밖에 안 되지만 지사를 늘리고 직원을 더 뽑아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는 데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구글과 같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lio@

홈쇼핑모아 방송 알람 설정 건수

단위: 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뜨면 '딩동~'

맞춤형 모바일 쇼핑 뜬다

모바일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용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상품 정보만 선별해서 확인하는 스마트 쇼핑에 눈을 돌리고 있다.

6월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쇼핑서비스 업체들이 차별화된 방법으로 사용자의 쇼핑 요구를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가 서비스하는 '홈쇼핑모아'는 모바일 홈쇼핑 포털 서비스로 국내 6개 홈쇼핑 채널의 방송 편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방송 알람과 모바일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다.

홈쇼핑모아·에누리 등 방송 알람 서비스 제공

홈쇼핑모아·에누리 등 방송 알람 서비스 제공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V 방송에 등장하는 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TV 속 상품', 소셜커머스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소셜모아', 백화점 매장 상품 가격 비교 서비스 '백화점 비교'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최저가 가격 알람' 기능은 이용자가 설정한 최저가 금액의 상품이 등록됐을 때 휴대폰으로 알람 문자를 보내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티켓몬스터는 '재판매 알리미' 기능을 서비스한다. 상품이 매진돼 구매하지 못한 상품이나 재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설정하면 해당 제품이 등록됐을 때 알람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 정보 과잉시대에 MD의 추천 상품 정보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쇼핑족이 증가하고 있다"며 "쇼핑 몰마다 구성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하는 상품 정보만 골라 구매하는 패턴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누리닷컴 최저가 알람 서비스.

올 상반기 1조... 벤처 투자 'e커머스'에 몰린다

국내의 벤처 투자금이 e커머스로 대거 몰리고 있다. 실물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업 특성상 매출이 즉각 발생하고, 성장성도 좋기 때문이다. 6월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내놓은 '2015년 상반기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 규모는 9569억원으로 전년 동기(6912억원)보다 38.4% 늘었다. 업종별로는 기존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에 치중되던 것과 달리 ICT 서비스(18.0%)와 유통·서비스(16.4%) 투자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중 특히 유통서비스 투자가 증가세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연도별 유통 서비스 투자 비중은 △10.1% △4.9% △7.9% △12.5% △16.4%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금이 유통서비스로 몰리는 이유는 실제 상품을 기반으로 해 매출이 즉각 일어난다는 점과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광고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자동으로 광고를 띄우고 잠금 해제를 하면 적립금을 제공하는 리워드 앱 업체들이 상승세다. 대

표적으로 NBT의 캐시슬라이드가 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 만 14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숍 업체인 원더플레이스도 최신 트렌드 반영으로 16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 e커머스 업체도 성장가도를 달리며 벤처 투자금을 쓸 어답고 있다. 지난 6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 부터 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쿠팡이 대표적이다. 쿠팡의 직접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은 배송의 혁신으로 자리 잡으며 유통업계 전역에 직접배송 바람을 일으키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유통 강자들의 부진이 이어지는 사이, 신생 유통 벤처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며 "이대로만 간다면 한국에서도 아마존과 같은 e커머스 공룡이 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psj@

아이타올(주)
www.itawel.co.kr

백분만 세면타올

10가지 컬러
흡수력 UP, 청량감 UP, 터치감 UP

www.itowellmal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강소건설사가 **핀다**

불황 깬 '3不 원칙'...주택공급 '넘버 3'로

〈2012-2013년 실적〉

⑥-골 중흥건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건설사들은 공공부문 공사 발주 감소와 장기적인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들은 오히려 주택공급을 늘리는 승부수를 띄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세를 달렸다. 그중 대표적인 건설사가 중흥건설이다.

중흥건설그룹은 1983년 중흥주택을 시작으로 1989년 중흥건설(옛 금남주택건설)을 설립했으며 1993-1994년 중흥종합건설과 세우면서 건설업 위주로 사업을 확장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1996년 중흥파이낸스를, 1997년 중흥정보통신을 설립하고 2000년 나주관광개발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지난 4월 기준 총 4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주택건설 전문업체로 성장한 중흥건설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2000년대 중반부터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의 지휘 아래 공격적인 경영이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오랫동안 고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중흥건설은 기업신용평가 AA-의 탄탄한 중견건설사로 거듭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4월(총 43개 계열사) 기준 자산규모 5조5650억원대이며 이 중 자기자본이 1조 2120억원가량이다. 같은 기간 매출 총액은 3조2610억원대로 전년 2조470억원가량보다 62% 정도 늘었다. 전체 그룹의 순이익은 총 468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흥건설이 불경기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창선 회장의 독심경영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1983년 회사 설립 이후 한 우물만 봤다. 여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은 건설사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 회장 경영철학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간다'다. 공격 경영이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기한다는 뜻이다.

중흥건설의 지속가능경영은 철저한 자금관리에서 시작한다. 현재도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비업무용 자산을 사지 않고 보증은 서지 않으며 적자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수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사업 계획을 세운 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관리



중흥건설은 공격 경영이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사진은 이달 중 공급예정인 광고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 49층 초고층 메메드급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아파트 2300가구, 오피스텔 240실과 대규모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사진제공 중흥건설

"비업무용 자산·보증·저가수주 없다" 정창선 회장 '내실 경영' 빛바 상반기 그룹 순이익 4680억원...아파트 넘어 레저 분야서도 두각

에 의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3불 원칙'인데 이같은 성과물로 중흥건설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결과 43위로 2011년 94위, 2014년 54위, 올해는 31위로 수직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기본은 무엇보다 뛰어난 시공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흥S-클래스는 품격이 살아 있는 집, 편리한 동선과 과학적 기능이 돋보이는 집, 입주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모토로 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만 '중흥S-클래스'로 1만여세대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난 2012-2013년 2년 연속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3위라는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해도 1만3000여 가구 가까운 자체 최대실적으로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이달 중 공급예정인 광고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는 49층 초고층 메메드급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아파트 2300가구, 오피스텔 240실과 대규모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호수 조망과 산 조망이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테라스하우스를 겸비해 향후 광고신도시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중흥건설은 중흥플레이스CC(36홀), 중흥폴드스파&리조트 등 레저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또한 양주시도시에서는 대립산업이 이달 중 'e편한세상' 양주시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양주시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며 전용면적 74~84㎡ 중소형 총 761가구로 구성됐다.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로 자리매김한 광고와 동탄에서도 대형사 분양물량이 공급된다.

GS건설은 이달 중 광고신도시 웰빙타운 B1블록에서 전 세대 테라스로 구성된 '광고파크자이 더테라스'를 분양하고 오는 9월에는 대립산업이 동탄2신도시 45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전용면적 60~135㎡ 총 1526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위례 '푸르지오·동탄2 e편한세상'... 2기 신도시 '빅 브랜드' 붐물

올 하반기에 위례와 양주, 광고,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2기 신도시에서 대형 건설사가 선보이는 빅 브랜드 분양물량 33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위례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8월 중 업무시설용지 26블록에서 '위례 지웰 푸르지오' 전용면적 68~84㎡ 오피스텔 총 784실을 신규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최고 33층, 7개 동으로 구성된다.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건물 (㎡)	감정가(만원)	최저입찰가(만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 번호
아파트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1, -5 가락금호 105동 17층 1702호	85	570,000,000	456,000,000	80%	8월 24일	동부1	2015-407
아파트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0 신사성원 101동 12층 1204호	60	235,000,000	188,000,000	80%	8월 25일	서부8	2014-3357
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 엘지캐포자이 101동 5층 502호	168	1,360,000,000	1,088,000,000	80%	8월 25일	중앙3	2014-10046
아파트	서울 강서구 등촌동 715 등촌동아이파크 106동 9층 901호	135	710,000,000	568,000,000	80%	8월 26일	남부11	2015-5009
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 -1 목동2차 우성 211동 8층 805호	114	500,000,000	400,000,000	80%	8월 26일	남부11	2015-7326

*자료제공: 지지옥션 www.ggi.co.kr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1, -5 가락금호 105동 17층 17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7년 8월 준공한 8개동 915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전용면적은 84.85㎡, 방 3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이다. 지하철 3호선 8호선 가락시장역이 단지에서 10여분 거리에 있으며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국립경찰병원, 가락분동주민센터, 롯데마트, 문정동우체국, 문정동로데오거리, 송이공원, 송파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다. 최초 감정가 5억7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4억5600만원이다. 입찰은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 2015-407. 박태진 기자 tipippo@

'뉴스테이' 하반기 5500가구 풀린다

인천 '도화 e편한세상' 2653가구 시작
서울 신당·대림, 수원 권선 등 4곳서
임대료 상승 제한... 최대 10년 거주

하반기 공급예정인 뉴스테이 물량

※ 출처: 각 사

단지명	전용면적 (㎡)	총가구수 (분양가구)	분양시기	시공사
e편한세상 도화	59~84	2653	8월	대립산업
(위치)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 5블록 6-1블록, 6-2블록				
미경	59~84	2400	9월	한화건설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미경	25~59	729	하반기	반도건설
(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미경	29~44	293	하반기	KCC건설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올 하반기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5000가구 넘게 공급된다. 이 주택은 최소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돼 전세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뉴스테이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 기금에 공동투자를 제안한 기업형 임대리츠 1차 사업으로, 인천 도화지구를 비롯해 서울 신당동, 서울대림동, 수원 권선동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총 5500여 가구가 선보인다.

뉴스테이는 올해 첫선을 보이는 임대주택으로 8년에서 최대 10년간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 또한 기존 임대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보육, 교육, 청소서비스 등 토탈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 또한 제한요건이 없어 주택소유 유무, 소득수준 제한, 청약통장 사용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는 정부에서 정한 임대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반경 5k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임대료 평균을 적용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먼저 공급에 나서는 단지는 'e편한세상 도화'다. 이달 말 국토교통부와 인천도시공사, 대립산업이 출자해 인천 남구 도화지구 5블록(뉴스테이 932가구)과 6-1블록(뉴스테이 1173가구), 6-2블록(공공임대 548가구)에 총 2653가구 규모로 이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24개 동, 전용 59~84㎡, 총 26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평행별로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월 43만~55만원 수준이다.

9월에는 주택기금과 한화건설이 공동으로 투자한 리츠가 수원 권선동에서 전용 59~84㎡ 총 24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평행별로 보증금 3000만~6000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하반기 중 서울에서는 신당동과 대림동에서 뉴스테이 공급이 예정돼 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외대 50%까지
채무감면

아파트, 전가, 투자 등
다양한 투자 기회

가정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든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 기회!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상장 신화’ 핏빗, 깜짝 실적 발표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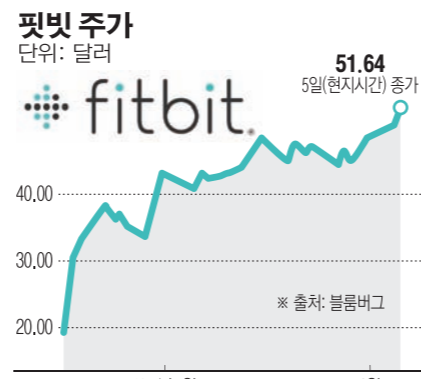
제임스 박 CEO “창사 이래 분기 최고 매출” 자축
샤오미와 경쟁심화·인 성장 속도 둔화 등 우려 확산
3분기 실적전망 투자자 실망 겹쳐 장중 12% 폭락도

건강 웨어러블 기기의 강자로 떠오른 ‘핏빗(Fitbit)’이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그럼에도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주가는 장중 12% 폭락했다.

핏빗은 5일(현지시간) 지난 6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핏빗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조정 후 주당 순이익(EPS)은 21센트, 매출은 4억 달러(약 4684억원)였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8센트와 3억1900만 달러를 각각 웃도는 실적이다. 같은 기간 핏빗의 제품은 450만대가 판매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량 172만대를 3배 가까이 넘어섰다. 총 마진율은 47%에 달했다.

제임스 박 핏빗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올 2분기에는 창사 8년래 최고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축했다. 지난 2007년 5월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박과 에릭 프리드먼이 공동 설립한 핏빗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핏빗의 제품이 애플의 애플워치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애플의 대항마 ‘웨어러블의 강자’로도 불렸다. 핏빗은 IPO 첫날 공모가격(20달러)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고, 이후 회사의 주가는 무려 70% 폭등했다.

하지만 이날 실적 발표 이후 핏빗의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장중 한때 무려 12%나 주저앉았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



익실현 매물이 형성된 가운데 회사가 제시한 올 3분기 실적 전망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한 까닭이다. 회사는 오는 3분기 매출이 3억3500만~3억6500만 달러, 조정 후 EPS는 7-10센트, 총마진율은 47-48%로 각각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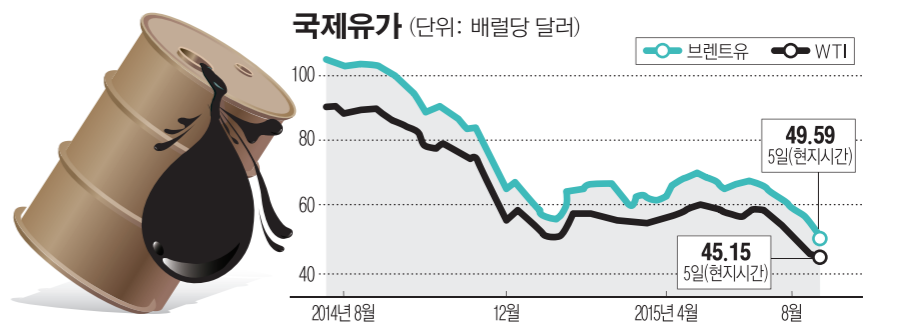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밥 팻트스트라스 스트래티지스트는 “인도에서의 판매가 둔화된 만큼 3분기 총마진율은 2분기보다 낮을 것”이라며 “핏빗의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티브 와이즈 소터힐스

캐피탈파트너스 창립자는 핏빗의 주가 하락에 대해 “투자자들은 이날 2분기 실적이 아닌 핏빗의 미래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핏빗이 브랜드 전략에서는 그 어느 업체보다 앞설 지 모르지만 기술 자체는 독보적이지 않다”며 “핏빗의 기술은 모두가 가진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피트 나자리안 옵션몬스터닷컴 창립자 역시 “현재 주목해야 할 점은 핏빗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라면서도 “핏빗이 고도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독보적인 브랜드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웨어러블 시장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핏빗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핏빗의 제품보다 100달러나 저렴한 ‘미 밴드’를 출시해 핏빗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핏빗의 주가는 장중 낙폭을 줄여 상승 반전, 전 거래일 대비 3.92% 오른 51.6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사우디, 저유가 재정난에 270억달러 국채 발행한다



8년 만에 처음... 올 129조원 적자 추산

저유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선다.

사우디 정부는 연말까지 270억 달러(약 32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5년물, 7년물, 10년물 국채를 53억 달러 내에서 분할 발행할 예정이다. 사우디통화청(SAMA)의 파하드 알무바라크 청장은 지난달에 이미 4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사우디 정부가 다시 국제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배경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선을 밑돌면서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45.15달러로 3개월 만의 최저치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후에도 46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런던 ICE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역시 50달러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115달러에서 거

래왔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 이상 폭락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사우디 정부는 재정난을 타개할 만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라는 강수를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유가 흐름에 따라 이번 국채발행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FT는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까지 상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우디는 유가 하락이 시작된 이후 정부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무려 650억 달러를 이미 소진했다. SAMA는 외환보유고가 지난해 8월 7370억 달러에서 현재 6720억 달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채발행이 사우디가 매꿔야 할 적자의 일부만 해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사우디의 적자 규모는 4000억 리얌(약 1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대형 인프라프로젝트, 공공부문 임금, 예멘과의 전쟁비용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美 기준금리 인상 ‘엇갈린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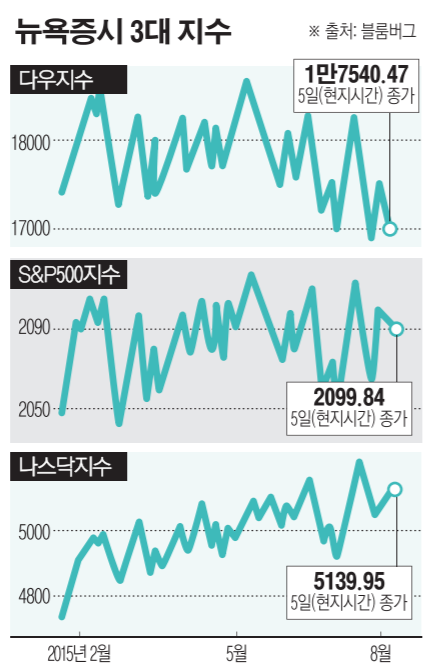
파월 연준 이사 “9월 인상 불확실”... 록하트 애틀랜타 연준은행장은 “준비 마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지표는 물론 내부에서의 의견도 엇갈리고만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는 5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9월 16,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9월 FOMC를 열기 전에 발표될 고용관련 지표를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과 두 달 전 “9월 첫 금리 인상 확률은 50%에 이른다”고 대파적 발언을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파월 이사의 발언은 바로 전날 연준 내에서 중도파로 통하는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이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록하트 은행장은 “9월에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나를 설득하려던 경제 지표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트세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들이



잇따르자 시장에서도 9월 금리 인상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도 등락이 엇갈렸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3%, 0.67%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0.1% 하락했다.

사실 지난주 FOMC가 열린 직후만 해

도 9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는 듯했다. 연준이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금리 인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FOMC 회의가 끝난 후 2분기 근원 물가 상승률이 1.8%로 상승해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하자 금리 인상을 확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2분기 고용비용지수(ECI)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이 선부르다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파월 이사가 인상 불확실 발언을 한 이날도 고용지표, 무역적자가 부진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7월 민간부문 고용은 18만5000명 증가해 당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21만5000명 증가를 밑돌았다. 6월 무역적자도 7.1% 증가한 438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42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시장은 7일 발표 예정인 7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유급 육아휴직 1년” 넷플릭스 ‘통큰 복지’

인재 유지·직원 충성 효과 기대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출산 및 임양을 한 남녀 직원에게 1년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넷플릭스는 남녀 직원들이 출산 또는 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게 하고자 해당 내용의 유급 출산·육아휴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외에 넷플릭스의 유급 육아휴가 정책에는 업무 복귀 시 자녀 육아를 위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등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타워니 그랜트 넷플릭스 최고인재책임자(CTO)는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직원들은 출산·육아 문제로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이번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회사 측은 인재를 잃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복직했을 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미국은 12주 무급 출산휴가만 인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유급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를(유급 출산휴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급 출산휴가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출산·육아휴가 정책이 후진적 면모를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번 넷플릭스의 유급 출산·육아 휴가정책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에게 출산·육아 휴가는 꼭 필요하며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현재 미국 경제상황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급 출산·육아휴가를 주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직원들의 소속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년보다는 기간이 짧고 제한적인 또 명확한 복지 시기를 정하는 출산 휴가 제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3개월의 출산휴가 가운데 2개월만 유급으로 규정돼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美 CEO·직원 간 ‘임금 격차’ 공개

SEC, 의무화 규정 승인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의 보수 격차 공개가 의무화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일(현지시간) CEO와 그의 직원의 보수 격차 공개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SEC는 이날 표결에서 보수 명세서 공개 의무를 위한 5명 중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수 정보 공개 의무화는 지난 20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에서 정한 것이다.

SEC는 보수 공개 의무화를 수년간 연거늘 노동조합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기업 단체들은 보수 공개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이익

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임금 인상이 충분치 않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미 경제 회복도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수 정보 공개의 의무화를 서두르게 됐다. CEO의 보수를 공개하면 결국 직원과의 보수 격차가 줄어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미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350개 대기업 CEO의 평균 보수는 1978년부터 2014년까지 36년 사이에 무려 997%나 뛰었다. 그러나 그의 직원의 보수는 불과 10.9% 오른 데 그쳤다.

1978년 CEO의 보수는 일반 직원의 30배였지만 작년에는 300배로 그 격차가 10배나 더 벌어졌다.

2016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4월 CEO의 연봉이 일반 직원 평균의 300배나 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한국인 희생자 추모



‘히로시마 원폭 70주년’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당시 희생자의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1945년 8월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강제 징용자를 포함한 조선인들이 대거 희생됐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8월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최근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일본인이 ‘미국의 원폭 투하를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6일 원폭사망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개국 이상이 참가했다. 히로시마/UPI연합뉴스

빛 잃어버린 銀... 4년간 70% 가치 ‘뚝’

지난 12개월간 27% 급락

최근 원자재 가격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은(silver)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은 선물 가격은 27%나 급락해 현재 온스당 15달러(약 1만8000원)를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금 가격은 16% 빠졌다. 뿐만 아니라 은 가격은 지난 2011년 4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8.599달러에서는 무려 70%나 떨어졌다.

WSJ은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은 광업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해 텅텅 기업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은 시장이 당분간 활황세를 되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내년에는 가격이 20% 정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WSJ은 은 가격 하락은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캐탈리스트뮤추얼펀드의 데이비드 밀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의 은 수요가 급감했다”며 중국의 경기 침체도 은 가격 하락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호텔신라서 배운대로... 맛있는 제주 만들게요”

대표 메뉴 ‘오리진흙구이’
전문가에 조리법 전수 받고
주방 노후시설물 전면 교체
10호점 ‘천보식당’ 재개장



호텔신라의 사회공헌활동 '맛있는 제주만들기' 10호점으로 선정된 '천보식당' 주인 강순옥 사장(가운데)과 '맛있는 제주만들기' 1~9호점 영업주,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도의회, JIBS, 호텔신라 관계자 등이 5일 개장식에 참석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호텔신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공들여 추진 중인 사회공헌활동 '맛있는 제주만들기' 10번째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2월 시작한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의 10호점으로 선정된 '천보식당'이 지난 5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했다고 호텔신라 측이 6일 밝혔다. 이날 재개장 행사에는 1~9호점 영업주들과 현을생 서귀포시 시장, 오종수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장, 김양수 JIBS 사장, 송성호 호텔신라 인사지원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재출발하는 천보식당 운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에 위치한 천보식당은 59㎡(약 18평) 규모의 영세한 동네 식당이다. 2012년부터 오리 요리와 국수

음식을 주 메뉴로 식당을 운영해 왔지만 하루 평균 고객 10명에 매출은 15만원 정도로 영업 수익이 저조했다. 호텔신라는 주변상권 조사와 식당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10호점만의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 조리법을 전수하고, 주방 공간 확대와 노후화된 시설물을 전면 교체했다. 대표 메뉴는 '오리진흙구이'와 '정식'

로 결정했다. '오리진흙구이'는 오리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진흙구이에 오리를 넣어 굽는 방식으로, 오리를 굽는 시설을 설치하고 사흘 동안 30분이 넘는 실험 끝에 가장 알맞은 구이 온도와 조리 시간을 찾아냈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정식은 오징어 카레 순대, 뽕배고기, 샐러드, 두부를 결합해 향토적인 맛을 이색적으로 해석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에 송재빈 전 KCL 원장

5년 4개월 동안 한국철강협회를 이끌었던 오일환 상근부회장이 물러나고, 송재빈(사진) 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이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철강협회는 5일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권오준 회장 회의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송재빈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상근부회장은 대표 성격을 띠는 회장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철강협회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한다. 송재빈 상근부회장은 1957년생으로 충남고와 충남대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석사)과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기술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6회 기술고시 출신인 송재빈 상근 부

회장은 국립 기술표준원 기계금속표준과장,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장, 기술경영혁신본부장, 산업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을 거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오일환 부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신임부회장 선임 이전부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근 기자 nova@

美 10달러 지폐에 '엘리너 루스벨트' 새겨지나

2020년 여성참정권 100주년 맞춰
124년 만에 여성 인물 도입 추진
여론조사에서 '루스벨트 여사' 1위



어 터브먼으로 17%를, 3위는 1800년대 초 미국의 서부 탐험대를 인도한 원주민 여성 새커거워아로 13%를 각각 차지했다. 새커거워아는 현재 1달러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인물이다. 미국 재무부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9조의 시행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10달러 지폐에 여성을 새겨넣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124년 만에 여성이 미국의 지폐에 등장하게 된다. 현재는 10달러 지폐에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새겨져 있다. 루스벨트 여사(1884~1962)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저명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했다. 젊은 시절부터 여성, 인권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했고, 남편이 별세한 뒤에도 유엔 주재 대표로 활동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에 기여했다. 남편 루스벨트 대통령의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의 대부분은 부인의 작품이다. 지난해에는 242명의 역사학자,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로 평가되기도 했다. 한편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들 엘리엇 루스벨트는 모친 사망 후 엘리너를 주인공으로 한 추리소설을 발표했다. 영부인 엘리너가 경찰을 도와 범죄를 파헤친다는 내용으로 한때 화제를 모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인사

- ◆언론중재위원회 △총무팀장 최영훈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급 승진 △감사실 최남용 △검사기획부 최병섭 △기술자격본부 김용섭 △총정본부 박영성 △2급 승진 △경영지원부 김호영 △콘텐츠 산업진흥부 김상재 △기금운용부 백남일 △전파관리부 정영모 △자격기획부 김승현 △서울본부 문광민 △부산본부 이승철 △3급 승진 △경영지원부 박동수 △대외협력부 유승국 △전파자원개발부 이봉규 △서울본부 윤기원 △부산본부 김권섭 △부산본부 박홍구 △경북본부 황성호
-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마케팅팀장 박정은 △동반성장팀장 이현주 △항만운영팀장 신동수
-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박은애

-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교육연구부장 임수미
- ◆소년한국일보 △NIE지원본부 본부장 최동기
- ◆아시아투데이 △독자마케팅부 부국장 정수열
- ◆포커스뉴스 △국장 △편집국장 국차장 신윤석 △사진영상국장 김연수 △미디어 전략실장 최석영 △시스템개발실장 안현준 △광고국장 하재화 △부국장 △산업부 류원근 △부장 △경제부 김형기 △사회부 이근우 △문화스포츠부 정병철 △국제부 고현석 △정치부 이승재 △사건부 서영길 △영상부 최한규 △미디어팀 정지연 이성훈 △디지털뉴스부 김동호 △차장 △산업부 지병철 △사건부 김영욱 박철중 △영상부 고광홍 △디지털뉴스부 최기민 △시스템개발실 박영관 홍익표 △미디어팀 김준목 △광고국 김의재 △차장대우 △사회부

- 김정욱 △문화스포츠부 허진우 △산업부 조윤성 △영상부 석진홍
- ◆부음
- ▲김치규(취재단 차장)씨 부친상, 김명수(소전약국 대표)·이근철(취재단 대표이사)·이도원(전 아시아투데이 광고국장)·홍준기(삼부토건 차장) 장인상 = 5일, 서산중앙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41-669-1414
- ▲한승욱(송실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 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2258-5940
- ▲장해섭씨 별세, 준영(SBS 국장)·진혁(베트남 스카이라이프 플리조트 대표)·희진씨 부친상, 김상우(김상우내과 원장)씨 장인상 = 5일, 대구 경북대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010-5236-9734
- ▲김중숙씨 별세, 류재일(조달청 비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이상준 포항공대 교수

동·식물, 생체내부 속 생체유동 현상 규명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포항공과대학교 이상준 교수를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8월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식물의 수액 수송과 암모기의 흡혈과정 등 다양한 생체유동 현상을 규명하고, 생명공학기술·환경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공학적 문제 해결에 접목할 수 있는 생체모사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과 생명체들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모사하기 위해 많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생체 내부의 유동 현상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오랜 세월을 걸쳐 최적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구조와 생체물질의 이동정도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비침습 방식의 측정기술이 필수적이다. 이 교수는 생체 내부의 유체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금나노입자를 고안하고 엑스선, 초음파 영상기법 등을 이용한 비침습 방식의 측정 기법들을 개발해 식물, 곤충, 동물과 같은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체유동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수 등 식물 물관의 3차원 구조와 수액 이동현상을 관찰해 물관 구조와 수액 흐름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양창균 기자 yangck@

“독도의 美, SNS로 전세계 알리요”

LG하우시스, 6번째 ‘독도사랑 청년캠프’ 개최

LG하우시스가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러 나섰다. LG하우시스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학생 20명, 문화재청,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홍인근 사진작가와 함께 독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세계에 알리는 ‘독도사랑 청년캠프’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6화계를 맞는 LG하우시스의 ‘독도사랑 청년캠프’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널리 알리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LG하우시스는 올해 캠프에 SNS를 적극 활용, 대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독도 사진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전 세계에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LG하우시스의 '독도사랑 청년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하우시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홍인근 사진작가는 캠프 시작과 함께 사진촬영 요령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고 독도까지 동행하며 참가 학생들이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홍인근 작가는 지난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

한 홍순철 대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이번 캠프 참가 학생들이 SNS에 올린 사진은 총 200여건으로, 국내외 SNS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LG하우시스는 지난 6년간 100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사랑 청년캠프’를 통해 우리 영토인 독도를 국내외에 적극 알리왔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한화 “6·25 참전용사 집 고쳐드립니다”

2011년부터 매년 10가구씩 진행
올해 3가구... 지원비용 대폭 올려



한화 임직원들이 6·25전쟁 참전용사의 집 주거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한화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주거시설 개선에 나선다. 한화는 5일 서울지방보훈청과 함께 진행한 ‘나라사랑 클린하우스 시즌2’ 1호 주택 준공식을 열었다. ‘나라사랑 클린하우스’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화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함께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0가구씩 진행해 지난해까지 총 4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올해에는 참전용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주거개선을 지원하고자 가구당 지원비용을 대폭 늘리고 3개 가구의 주거개선 작업을 했다. 이날 준공식을 진행한 1호 주택

은 지방교체 작업부터 방수공사까지 마쳤다. 나머지 2개 세대도 대문교체, 도시가스 연결, 부엌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한화 이태동 사장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신 감사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이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수출입은행 ‘초등학생 금융교육’ 4000만원 후원

수출입은행은 초등학생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뮤지컬’과 ‘경제금융 교실’에 총 4000만원을 후원한다. 이덕훈 행장(사진 왼쪽)은 이날 오후 수은 예외도 본점에서 김중창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을 만나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행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다문화 어린이 등 초등학생 300여명에게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세대”이라며 “뮤지컬과 경제교육이 여러분을 경제박사로 이끄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셋별 기자 byul0104@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부터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 400명 및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수은 희망세대와 함께하는 생생 경제·금융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송승헌, 中 여배우 류이페이와 열애

영화 ‘제3의 사랑’ 찍으며 가까워져
“시작하는 단계... 결혼 언급 일러”



배우 송승헌과 류이페이. 송승헌 트위터 캡처

한류스타 송승헌(38)이 중국배우 류이페이(류역비·27)와 열애를 인정하면서 또 한 쌍의 한·중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중국 연예 매체 전민성탐(全民星探)은 5일 “류이페이와 송승헌이 열애 중”이라며 “류이페이가 송승헌과 같은 차를 타고 상하이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송승헌과 류이페이가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송승헌이 다음날 이 별장에서 류이페이의 부모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송승헌과 류이페이는 영화 보도에 송승헌의 소속사 대종은이엔티 측은 이날 이투데이에 “영화 촬영이 끝난 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라며 “결혼을 언급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류이페이도 이날 자신의 웨이보에 “비록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은 두 개의 ♥를 울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연인 관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송승헌과 류이페이는 영화 ‘제3의 사랑’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제3의 사랑’은 중국 베스트셀러 소설 ‘제3의 애정’이 원작인 멜로 영화로 9월 17일 중국에서 개봉한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김덕중의 세상읽기

한국정치문화원 회장
전 기천대 객원교수

어느 지식인의 100년 삶

서정주와 황순원, 박목월은 1915년 을미생 동갑이다. 기업인 정주영도 생존해 있으면 꼭 백 살이다. 정우는 신문기자였던 필자와 우연히도 세 번이나 단독회견을 가진 바 있다. 그때마다 건강하시나 물으면 그건 내가 백 살이 됐을 때나 와서 물으라며 한바탕 깔깔 웃곤 했다.

세상 일 모른다더니 그는 차매를 앓다 팔십 중반에 돌아왔다. 백 세 시대가 눈앞에 왔다지만 아직 백 살을 산 유명인은 없는 듯하다. 위의 문헌인 세 명과 불세출의 기업가 한 명의 탄생 백 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내가 여기에 무슨 유감이 있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아련히 가슴을 저미는 한 지식인의 삶이 떠오른다. 그도 옛사람들과 동갑내기다. 탄생 백 년이다. 그를 K라고 하자. K는 향리가 충남 서산이다. 요즘 달라졌다지만 그 벽촌에서 몸을 일으켜 그 무렵 충청권 명문 공주고보를 나왔다. 따져 보면 김중필(JP) 전 총리가 11년 후배다. JP와의 회견 때 K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하(참말 굉장하) 반가워했다.

K는 수재였다. 공주고보 유사이래 최초로 경성법학전문학교에 합격했다. 일제 당국이 해마다 백 명을 뽑았는데 일본인 60명, 조선인은 따로 40명을 합격시켰다. 복녘 수재들도 몰려왔다. 평양고보-신의주고보-원산고보-함흥고보-해주고보 1등들이 쇄도했다. 서울(당시 지명은 경성) 강제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경기고보-경북고보가 공립학교였고 보성·중앙·휘문·양정·배재고보가 전통적 유명 사립학교였다. 서울고·용산고는 일본인 학교였다. 여기에 남녘 지방 명문 고보로, 공주·정주·전주·광주·대구고보(현 경북고)에 다 부산고보가 가세했다.

왜 이렇듯 조선인들이 살인적 경쟁에 뛰어들었을까? 이 학교를 나오면 전국의 각급 법원-검찰의 견습

사무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조선인으로 판·검사(고등문관시험 사법과) 시험에 합격하는 이는 1년에 고작 서너 명뿐이었다. 그러하니 그나마 굉장한 출세였다. 필자가 이토록 장황하게 학교 이야기에 지면을 할애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선인 수재의 삶의 희망처, 곧 율해로 탄생 백 년을 맞은 이들의 불우한(?) 로망이었던 걸 세상에 알리고자 함이다.

해방 직후 미국 군정치는 당황했다. 남쪽만이라고는 하지만 전국에 조선인 관·검사(吏)가 태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가인(街人) 김병로 등의 권유에 따라 경성법전 출신 사무원 전 원(40~50명)을 형식적인 특임시험이

란 걸 거쳐 판·검사로 임명했다. 이들이 뒷날 검찰총장-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K! 그의 운명은 기박했다. 워낙 다혈질이라서 시간방진 일본인 판사를 때려 눕히고 파면됐다. 그는 향리로 가 5년제 중학교 교감 겸 영어 교사를 했다. 그러다가 '더러운 전쟁'인 6.25를 만났다. 외야들(당시 나이 7년 6개월)이 병약해 고가워했다.

민 끝에 피난을 포기했다. 아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죽기 심상이었다. K는 진작 사립학교 교장이나 하다가 삶을 마칠 생각이었음을 내게 털어놓았다. 이른바 패배주의 인생을 선언했던 거다.

그 시골에도 진주한 공산군 당국은 K에게 '자아비판'을 하라고 했다. 지주의 아들이다 높은 학교 출신의 부르주아 타성을 버리기로 약속했다. 말단 교사로 강등된 채 겨우 두어 달 영어를 가르쳤다가 그는 경찰에 투옥됐다. 나중에 판·검사가 되었다. 그는 판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형법상 긴급피난이 인정돼 무죄로 나왔다. 그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대저로 나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 향년 79세. K는 나의 선친 김용태 박사다. 나는 그의 삶을 '사람들<사진>이란 책으로 묶어냈다.



김덕중의 '사람, 사람들' - 한국 현대 인물론

K! 그의 운명은 기박했다. 워낙 다혈질이라서 시간방진 일본인 판사를 때려 눕히고 파면됐다. 그는 향리로 가 5년제 중학교 교감 겸 영어 교사를 했다. 그러다가 '더러운 전쟁'인 6.25를 만났다. 외야들(당시 나이 7년 6개월)이 병약해 고가워했다.

민 끝에 피난을 포기했다. 아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죽기 심상이었다. K는 진작 사립학교 교장이나 하다가 삶을 마칠 생각이었음을 내게 털어놓았다. 이른바 패배주의 인생을 선언했던 거다.

그 시골에도 진주한 공산군 당국은 K에게 '자아비판'을 하라고 했다. 지주의 아들이다 높은 학교 출신의 부르주아 타성을 버리기로 약속했다. 말단 교사로 강등된 채 겨우 두어 달 영어를 가르쳤다가 그는 경찰에 투옥됐다. 나중에 판·검사가 되었다. 그는 판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형법상 긴급피난이 인정돼 무죄로 나왔다. 그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대저로 나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 향년 79세. K는 나의 선친 김용태 박사다. 나는 그의 삶을 '사람들<사진>이란 책으로 묶어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논설위원 겸 대중문화 전문기자

재벌 그룹 회장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혼외정사로 태어난 딸을 포함한 세 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아들은 내쳐지고 장녀는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다. 개연성 없는 막장 드라마로 비난을 받았던 드라마 '상류사회' 7월 27일 방송 내용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6명을 해임했다. 이내 신동빈 회장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 총괄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며 롯데 '형제의 난'은 촉발됐다. 7월 27일, 현실에서 롯데라는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 오면 것이다.

7월 27일, TV 안팎에서 기막힌 일치를 보였다. TV 화면 속 막장 드라마와 현실의 '롯데'가 어찌 그리 비슷한지, 아니다. 현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막장 드라마 '롯데'의 자극성과 패악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오죽했으면 '롯데'라는 막장 드라마는 "오늘의 롯데그룹을 있게 해 준 국민에게 역겨운 배신행위"라

막장 드라마와 막가파 드라마 '롯데'

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서정원 최고위원마저 질타하고 나섰는가.

'저질 드라마' '퇴폐드라마' '엇기드라마'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그리고 '막장 드라마'까지. 문제의 드라마는 선정성과 자극성의 강도를 더하면서 명명되는 수식어도 변모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청자는 막장 드라마가 사람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황폐화하며 우리 사회의 막장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질타한다. 선정성과 폭력성, 자극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가 돈과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브레이크 없는 탐욕의 무한 집주를 하는 막장 사회를 만든다는 비난을 덧붙이면서.

막장 드라마가 막장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도 하지만 막장 사회가 막장 드라마를 양산하기도 한다. "막장 정치는 사회가 막장일 때 설득력을 발휘한다. (드라마에서) 막장 현상이 지배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한국이 막장이기 때문이다"는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가 적시한 막장 사회와 막장 드라마의 연계성은 매우 유효한 분석이다. 재벌 2세가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시청자의 슬픈 욕을 먹으면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탐욕의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삼부자가 주연으로 나오는 '롯데' 같은 막장 드라마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적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 한마디에 움직이는 독단적 황제경영에서부터 매출액 83조 원, 임직원 10만 명의 재계 서열 5위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신 회장 일가의 인식, 기업

의 이미지가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입장보다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가족의 치부마저 폭로를 서슴지 않는 신동주·동빈 형제의 골육상쟁,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이조차 제대로 못 하는 총수일가의 행태까지 극악한 모습은 막장 드라마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소재 그 자체다. 아니다. 국민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롯데 총수일가가 벌이는 탐욕의 행태는 '막장 드라마'라는 용어를 용도 폐기시키며 '막가파 드라마'의 새장을 열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TV 막장 드라마의 병폐도 크지만 롯데에 의해 현실에서 펼쳐지는 막가파 드라마의 폐해 역시 엄청나다. 국가경제 악영향은 물론 기업 이미지의 추락, 소비자의 불신으로 인한 기업 임직원의 불안 고조, 국민 정서의 황폐화 등 롯데의 신격호, 신동주, 신동빈 삼부자에 의해 진행되는 막가파 드라마의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기도 지쳐 롯데 총수 일가를 향해 '아메로(악무그그만뒤)'를 외치기 시작했다. 자극성과 탐욕의 강도를 점점 더해가는 '롯데'라는 막가파 드라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더라. '아메로 쿠레(악무테그레히지 마)'라고 소리친다. '롯데' 총수 일가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막가파 드라마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함께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롯데로 인해 이제 TV에선 막장보다 더 자극적인 막가파 드라마가 유행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나만의 생각일까.

knbae@

하루 한 생각 8월 6일 仁山智水(인산지수) 어진 사람은 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

산과 바다가 피서인파로 붐빈다. 산을 좋아하는 이와 바다가 좋아하는 이는 뭐가 다를까? 눈여겨볼(雅也)편에 이에 관한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움직이고 어진 자는 고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즐겁고 어진 자는 오래 산다." [智者樂水 仁者樂山 智者樂 仁者靜 智者樂 仁者壽]

완당전집에 실린 추사 김정희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산(금강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한 놀이하는 방술(方術)이 있는데, 신선(仙)의 놀이(仙遊) 산가의 놀이(禪遊) 유자의 놀이(儒遊) 세 가지입니다. 인산지수(仁

山智水)와 옥약금주(玉簫金縷)와 화염누각(華嚴樓閣)은 모두 그 성(性)에 가까운 것으로 경우에 따라 다를 뿐, 산은 본디 다름이 없습니다." 옥약금주는 도가의 양생법에 관한 말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인산지수는 仁者樂山 智者樂水(인자요산 지자요수)를 합친 말이다.

이 말에 대한 '한시외전(韓詩外傳)'의 해석이 재미있다. 지혜로운 자가 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은 순리를 따라 흐르되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고 적서스니 지혜를 갖춘 자와 같고, 아래로 흘러가니 예를 갖춘 자와 같으며, 깊은 곳도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가니 용기를 가진 자와 같고, 막혀서 갇히면

고요히 맑아지니 천명을 아는 자와 같고, 험하고 먼 길을 흐르면서도 남을 허물어뜨리는 법이 없으니 덕을 가진 자와 같기 때문이다.

어린 자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은 만인이 우러러보는 대상이다. 초목이 그곳에서 나서 자라고 만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새들이 모여들고 짐승이 쉬어 간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익을 취한다. 천지의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산에는 구름과 바람이 불어 언다. 천지는 이로써 이루어지고 국가는 이로써 안정을 얻는다. 그래서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상류사회' 박형식의 뒷얘기

박형식이 SBS 종영드라마 '상류사회'(극본 하명희, 연출 최영훈)의 중역 소감과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박형식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모든 배우가 (연기자가 아닌) 극중 인물로 보였다"며 "주연 배우들이 모두 강한 색깔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와 캐릭터로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캐릭터가 보여서 자연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식은 또 "(임)시완과 (황)광희가 인기를 모았고, 이제 제가 주목받고 있다. 로테이션이 풀고 도는 느낌이다. 서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작품 들어갈 때마다 응원해준다"고 제국의 아이들 멤버와의 시너지 효과를 언급했다.

이어 박형식은 "(멤버들이) 특별히 모니터를 해주다가보다 믿어준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sun@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희소식!!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윙스팟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 크면 스윙스팟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에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 지고있는 추세.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찌릿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하다.

두배로 넓어진 스윙스팟(sweet spot)면적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짧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국제특허 비틀림 방지사프트 *충격흡수 Winn 특수그립

유래, 상쾌,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는 늘어났고 원발이 불현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혹은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큼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혹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딩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어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황교마>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딩!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져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샤프트와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간에 아무다짐식(따 연속4개)의 파문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들 추가추카.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간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신제품 론칭기념 **20만원** 할인 판매중

正論

마이너와 메이저를 넘나드는 '노동개혁'

정수천의 초점

문화부 기자

노동개혁은 지금도 이미 늦어진 과제다. 최근 르노자동차는 차생산 업계에선 처음으로 호봉제를 폐기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전국교사노조는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분을 거둬 서로 똑같이 나눠 갖는 저항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맞이한 노동개혁의 방향은 단 하나다. 능력에 맞춰 보수가 책정되고 반복된 저성과자는 해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능력을 더 갖춘 근로자가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는 마이너리그로 내려오는 노동시장이 조성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지만 대기업과 공공노조의 조직된 힘에 눌려 20년 이상 지체되어 왔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모두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먼저 업무능력과 기여도에 따른 보수체계가 확립되기 위해 해선 무엇보다 호봉제와 같은 연공서열(年功序列)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60세에 이를 때까지 세월이 갈수록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생산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은 입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나이가 계급이고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나로 급여가 결정되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입사 20년만 지나면 누구나 신입직원보다 3배 높은 급여를 받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이로 임금 받는 나라다.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은 해고(解雇)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해고는 못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결과적으로 청년과 자녀의 일자리만 줄이는 악순환을 만든다. 능력 없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다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도 바로 기존 직원이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가 없는데도 해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한번 진입할 경우, 60세까지 고연봉을 받으며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격이다. 해고 없이 30여년간 평균 연봉 9000만원의 성과를 낸 노동자를 지금 더 채용하라는 것은 대기업에게 모험을 하라는 것이고, 그러다 기업이 망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년실업의 본질도 청년들이 마이너리그에서 직장생활

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들어진 구조에 있다. 한번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면 끝까지 마이너리그에서 끝내야 하는 사회에서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는가.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라 메이저리그로 넘어갈 수 없는 노동구조 때문이다. 한번 들어가면 해고 없는 고연봉이 보장되는 메이저리그가 유지되는 한, 마이너리그의 기업에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공노조가 만든 기득권의 희생자다.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메이저리그 노동자도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물론 메이저리그 노동자가 마이너로 갔다가도 경쟁력을 갖추면 다시 메이저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해고가 가능할 때 경쟁력도 유지되고 일자리가 확대됨에도 메이저리그 노조는 집단적 힘을 무기로 결코 내려가지 않는 기득권을 쌓아놓고 있다. 이번 노동개혁의 과제는 기득권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노동기회가 열리게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하는 '잡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독립기념관 비상임 이사 △나라정책연구원장

태릉선수촌과 왕릉, 공존의 길은

브라질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축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에서 한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자리 잡은 태릉선수촌이다. 1966년 6월 세워진 태릉선수촌은 그동안 수많은 국가대표가 거쳐가며 234개의 올림픽 메달을 품어 안았다. 지금도 리우 올림픽을 위해 300명이 넘는 국가대표와 예비 국가대표 선수가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 등록을 문화재청에 신청해 체육계에 힘을 실어줬다. 운동장과 승리관, 월계관, 챔피언 하우스, 행정동, 개신관, 올림픽의 집, 영광의 집 등 8곳이 대상이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 등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사 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인정되는 문화재로 말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더는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의 훈련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태릉선수촌 철거와 보존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50년 가까이 한국 체육의 역사와 함께한 태릉선수촌이지만,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 사이에 있어 문화유산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태릉은 중종의 두 번째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의 묘다. 8년 동안 명종 대신 수렴정정했던 문정왕후는 1565년 태릉에 안장됐다. 그 옆, 강릉에는 명종과 인순왕후가 나란히 묻혔다. 태릉선수촌은 그 사이에서 모자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

분명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태릉선수촌이 간직한 역사적 가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태릉선수촌 보존을 체육계의 욕심에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2007년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근현대 체육사를 함께한 태릉선수촌의 모습이 글과 사진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태릉선수촌 보존을 원하는 체육계 일부는 선수촌의 흔적이라도 남기길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태릉선수촌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근

하지만 남은 시간이 길지만은 않다.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태릉과 강릉의 원형 복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유네스코에 태릉선수촌 철거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했다. 계획대로라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종료되는 2016년 8월 31일 이후 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약속인 만큼 왕릉의 원형 복원은 피할 수 없더라도 범위와 방법은 생각해 볼 문제다. 태릉과 강릉, 태릉선수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차례다.

한편, 태릉선수촌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흔적이 보존돼도 훈련시설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진천선수촌은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진천선수촌은 충북 진천 무이산 자락에 있어 서울에 자리 잡은 태릉선수촌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int1000@

고 윤 화 기상청장
침묵의 살인자 '폭염'

폭염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태풍이나 홍수같이 요란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지난 2003년 폭염으로 3만 5000명의 초과사망자 수(연평균 사망자 외에 초과로 사망한 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에는 한 달 가까이 발생한 폭염으로 다른 해보다 전국적으로 무려 3000여명의 사망자가 늘었다.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이나 발생할 정도로 폭염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폭염이 더 일찍 찾아오고,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0년간 평년값(1980-2010년)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10.1일 발생했던 폭염 일수가 최근 5년(2010-14년) 동안에는 12.5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미래의 폭염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 정책없이 지구온난화가 이어진다면 21세기 말 우리나라 폭염 일수가 최

대 6배까지 증가하고 75세 이상의 온열질환 사망 비율도 현재 27%에서 2030년에는 66%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나이, 직업,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농촌에서의 폭염 사망률이 도시보다 10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인구가 농촌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부처별 폭염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발표)를 통해 부처별 재난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점을 결정하며, 기상 관측과 예측을 통해 폭염 피해를 분석·전망하고 있다.

학·관·연의 협력으로 온열질환자 조기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적으로 연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면 폭염으로부터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 침묵의 살인자 폭염의 긴 침묵을 깰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김 유 진 자본시장부/eugene@
기업 사유화 피해보는 주주

"수십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기업을 평가 받을 때 사업이 얼마나 잘되느냐,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이런 것보다는 대주주가 누구인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상장사의 대표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전한 얘기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말이 있듯 주주는 회사 경영의 중축(中軸)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주주는 회사의 앞날을 이끌어가는 존재로도 보며 기업의 신용평가 등을 매길 때 중요한 평가자료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주식회사에도 대주주가 회사를 사유화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했다. 바로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경영자가 주식회사를 주주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 내 것'을 따지고 있다. 기업을 사유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주주의 만행에 피해를 보는 것은 롯데라는 브랜드를 믿고 투자한 일반 주주들이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 후진적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의 재벌기업의 부정적인 단면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롯데

계열사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롯데 계열사의 시가총액 1조4474억원이 증발했다.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썰물 빠지듯 롯데 관련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358억원, 기관은 3463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1197억원을 순매수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단어만 두고 주가 상승을 기대한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롯데 경영권 분쟁에 따른 기대감을 갖지 말라며 이는 '결말'을 모르는 주말 드라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대주주의 기업 사유화에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들이었다.

대주주가 회사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주주가 잘못된 생각으로 회사를 사유화해 버린다면 피해는 힘없는 일반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해 질 수밖에 없다. 경영권 승계에 앞서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개념을 정립해야 할 때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 정호승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뉴욕 약국서 탄생한 '피부 名藥'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46 키엘 **Kiehl's**
SINCE 1851

kiehls history

1851

존 키엘이 뉴욕 이스트 빌리지 3번가와 13번의 교차로에서 키엘이라는 이름의 조제 약국을 운영

1921

제 1대 계승자 어빙 모스가 존 키엘로부터 조제약국을 인수, 키엘이라는 이름과 조제약을 제공하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현대적 사설의 약국으로 확장

1961

아론 모스가 아버지 어빙 모스로부터 키엘 약국을 물려받아 운영

1989

아론 모스의 딸 제이미 모스가 키엘의 3대 계승자가 됨. 제이미 모스는 키엘의 샘플링 철학인 '사용해보시고 구매하세요(Try Before you Buy)' 서비스를 시작

2003

뉴욕시에서 키엘의 사회 공헌 활동을 기리고자 11월 12일을 키엘의날(Kiehl's Day)로 공식 선포

2005

하버드, 콜럼비아 대학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앤티케어 라인인 '키엘 디마톨로지스트스쿨루션스'를 론칭

2011

브랜드 탄생 160주년 기념, 서울 삼청동에 한국 최초 키엘 부티크 오픈

1851년 콜럼비아 약대출신 존 키엘 오픈 허브 이용한 '립밤 #1' 등 베스트셀러 개발 개인 맞춤형·샘플링 정책 세계인에 사랑

1851년 뉴욕 이스트빌리지의 조제 약국에서 탄생한 코스메틱 브랜드 키엘은 약국 전통에서 축적된 전문적 지식과 내추럴 성분배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하면서도 탁월한 효과를 지닌 제품을 만들고 있다. 또한 1:1 고객 맞춤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들과 진정한 신뢰를 쌓고자 하는 키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키엘의 오랜 전통과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힘이다.

◇약국에서 시작한 뷰티 브랜드 = 키엘은 164년 전인 1851년 콜럼비아 약대를 졸업한 존 키엘이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오픈한 키엘 약국으로 출발했다. 당시 존 키엘은 내추럴 허브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어빙 모스라는 조수에게 오랫동안 계승돼 온 약학과 허브 관련 지식을 전수했다.

존 키엘의 은퇴 후 어빙 모스는 뛰어난 효능을 가진 식물들을 세계 각지에서 구해 탁월한 효과를 가진 제품들을 개발해 왔다. 몇 년 후 어빙 모스의 아들인 아론 모스가 약국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남성용 셰이빙 제품을 선보이고 키엘의 '남성 케어'를 시작했다. 아론 모스는 또 세계적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 사랑한 '블루 아스트린트 허벌로션'과 보디크림의 클래식이라 불리는 '크렌드코르' 촉촉한 입술을 위한 '립밤 #1'과 같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키엘의 전설적인 제품들을 탄생시켰다.

아론 모스는 키엘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올바른 제품 처방과 인체·피부와 골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이즈의 해골 모양을 진열했다. 흰 약사 가운을 입은 해골 조형물은 '미스터 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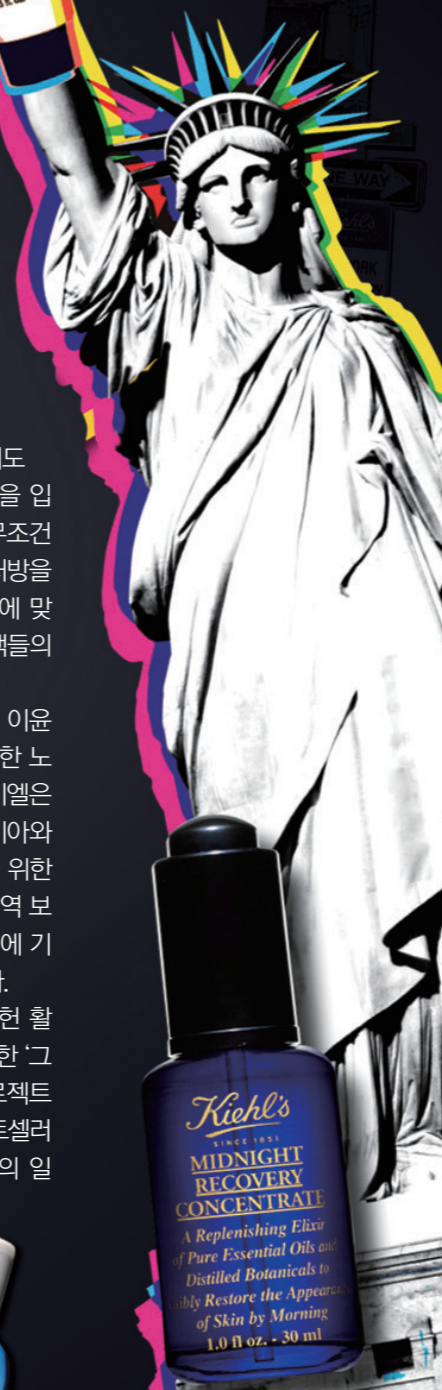
라는 이름으로 키엘의 164년 약국 전통,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스킨케어의 전문성, 그리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 전 세계 키엘 매장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한 샘플링 정책 = 1980년대에 아론 모스의 딸인 제이미 모스가 키엘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한다.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업적인 광고 대신에 사용해 보고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사용해보시고 구매하세요(Try before you buy)'라는 샘플링을 시작한 것. 소비자들은 키엘 제품에 대한 좋은 경험과 느낌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키엘의 1:1 고객 맞춤 및 샘플링 정책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키엘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흰 약사 가운을 입은 전문 상담가 KCR(Kiehl's Customer Representative)는 무조건적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사가 개인별 처방을 해주는 것처럼 100여 가지가 넘는 제품 중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샘플을 증명하고 있다. 직접 샘플링 제품을 사용해 본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착한 행보 = 키엘은 '기업의 이윤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 철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10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키엘은 전 세계 청소년 대상의 에이즈 퇴치 교육 및 후원 활동, 국제 미디어와 착취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마련 등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린랜드를 비롯해 아마존 밀림지역 보존 등 환경 관련 활동은 물론, 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변함없이 기업 철학을 지키고 있다.

키엘은 특히 각 나라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 배우 이범수와 함께한 '그린 콘서트' 2010년 한국의 '작은산 살리기'를 위한 에코백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해마다 키엘의 베스트셀러 '올트라 페이스 크림' 정보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해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선에 기자 isa@



올트라 페이스 크림



키엘의 베스트셀러인 올트라 페이스 크림은 빙하 당단백질 추출물과 사막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24시간 뛰어난 보습 효과의 대한민국 1위 수분크림이다. 광물성 오일이 아닌 올리브와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 준다. 남녀노소 및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다. 특히 2005년에는 그린랜드 원정대가 매서운 추위와 따가운 태양의 환경을 가진 그린랜드에서 사용해 올트라 페이스 크림의 뛰어난 보습력을 입증해 더욱 화제가 됐다.

수분자외선차단제



출시 이후 키엘의 베스트 셀러로 자리매김한 자외선 차단제를 업그레이드해 2015년 선보인 'NEW 수분 자외선 차단제'는 단파UVA, 장파UVA, UVB까지 모두 빈틈없이 강력하게 차단해 준다. 프렌치로즈 추출물이 자외선으로부터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수분 베이스 포뮬라가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또한 주름 개선 및 예방을 도와주는 기능성 성분으로 팽팽하고 매끈한 피부로 케어해 노화를 완화시켜 준다.

칼렌듈라 꽃잎 토너



칼렌듈라 꽃잎 토너는 칼렌듈라 꽃잎 한 장 한 장을 수작업으로 정성껏 담은 50년 전통의 진정 토너이자, 키엘의 160여년 내추럴 성분배 대한 노하우를 대표하는 토너다. 칼렌듈라의 탁월한 진정 효과로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 주며, 그레이트버드를 함유해 건조한 피부와 번들거리는 피부의 우수한 밸런스를 회복시켜 준다. 특히 외부 환경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받은 경우, 칼렌듈라 토너를 사용해 집중 진정 케어를 하면 더욱 좋다.



ELLE is a trademark owned by HACHETTE FLIPACCHI PRESSE SA, Paris, France. 02.6004.3930 www.elle-shop.co.kr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앞으로 로봇이 인간을 애완전처럼 끌고다닐 수 있다” 엘론 머스크

인공지능 기술, 축복인가 재앙인가

제3의 혁명



“킬러 로봇은 내일의 ‘칼라시니코프(AK47 소총)’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무기, 즉 킬러 로봇의 개발은 화약과 핵무기에 이은 제3의 전쟁 혁명이다.”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의 서막을 방불케 하는 이런 경고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AI에 관한 국제공동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유명인사 1000여 명이 AI의 군사적 이용 자제를 촉구한 공동 서신에서 나온 것이다. 전기자동차 업체 선두주자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애플 공동설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등 쟁쟁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영화 ‘터미네이터’ 속의 우려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컴퓨터 과학자인 존 매카시가 지난 1956년 다트머스대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해 처음으로 AI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 해독 등 군사적 목적으로 탄생한 컴퓨터를 통해 과학자들은 AI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AI는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으로 상징되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 등에 199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1997년 5월 일어난다.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에 패배한 것이다.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1년 2월에는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이 미국 인기 퀴즈쇼 재퍼디에서 우승한다. ‘왓슨’은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해당 질문을 알아듣고 말로 답하는 등 인간의 지능과 비슷하면서도 속도와 정확성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AI는 현재 무인자동차와 의료, 교육, 국방, 재무분석, 투자,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리서치업체 BCC리서치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마트머신 시장 규모가 오는 2019년에는 153억 달러(약 18조원)에 이르고 이때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9.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머신은 AI를 통해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기들을 뜻한다. 무인자동차가 대표적인 스마트머신 중 하나다. 무인자동차는 AI와 페러아 벨 수 없는 관계다. 컴퓨터가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이나 차선 노면상태 등 각종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고 분석해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AI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왓슨’은 재퍼디 우승 이후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IBM은 최근 일본 도쿄대와 손잡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왓슨을 이용한 암 치료법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7개 업종이 ‘왓슨’을 이용하고 있다.

창의성과 감성 등 AI가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문에서도 왓슨은 활약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IBM이 개최한 ‘월드 오브 왓슨’ 이벤트에서는 왓슨이 참출한 레시피로 만든 요리가 제 공되기도 했다.

월가에서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주식 거래가 일상화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AI를 활용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AI 기반의 자동뉴스 제작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내러티브 사이언스는 2013년 금융서비스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현재 이 업체 전체 고객 중 60%가 금융기관이다.

현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기인 스마트폰에도 AI 기술이 녹아 있다. 애플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나 언어를 분석해 맞춤 검색이나 조연을 제공한다. 심지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0월 기사에서 자폐증을 앓는 13세 어린이가 시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호킹과 머스크 등 ‘터미네이터’적인 미래를 경고했던 유명인사들은 앞으로 수십년이나 수년 안에 AI가 생활 전반에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사가 무작정 AI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머스크는 “컴퓨터의 지능이 발전해 앞으로 로봇이 인간을 애완전처럼 끌고다닐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기는 등 AI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머스크의 테슬라도 이미 무인자동차 등 AI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SF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사용에 대해 인류가 고민할 시점이 됐다. 교통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로봇과 드론 등이 안전하게 인명을 구출하는 등 AI가 인류의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적이 되느냐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체스왕 꺾은 ‘딥블루’... 퀴즈쇼 우승 ‘왓슨’

인간과 지능 비슷하면서 속도·정확성 앞서

AI기술, 교통·의료·국방 등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

영화 ‘터미네이터’ 속 로봇인간 시대 현실로

일각선 “킬러로봇, 핵무기보다 위험” 경고

글로벌 IT기업, AI개발 경쟁

구글 ‘강화학습’ 기술특화 기업 인수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

애플·MS 등 음성인식 개인비서 출시

아마존은 드론 이용 ‘관리로봇’ 개발중

글로벌 기술정보(IT) 기업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의 불꽃 튀는 막이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답마인드라는 영국 AI 스타트업에 6억 달러(약 7000억원)에 인수하는 등 이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답마인드는 인간의 두뇌 활동을 본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강화학습’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다. 답마인드가 보유한 기술은 유튜브 추천이나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음성검색 엔진 성능 개선 등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은 지난해 사진에 나온 장면을 정확한 문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선보이기도 했다. 과거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엔 나온 성과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테이블 위에 피자가 2개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물체의 명칭은 물론 그 수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검색이나 음성인식 개인비서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셈이다.

무인자동차 개발, 디지털 온도계업체 네스트와 군사용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등 구글의 미래 기술 개발의 중심에 AI가 있다. 지난 6월 구글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행한 무인자동차 도로실험은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준 사례다. 구글은 핸들과 액셀, 브레이크가 전혀 없는 완전 자동운전 자동차를 목표로 하며 여기서 두뇌를 담당하는 것이 AI다.

AI는 거대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일본 니혼게이지이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구글의 무인자동차 개발에는 도시 교통 인프라의 개념 전환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택시나 버스 대신 승객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는 무인차를 불러내 목적지까지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우버의 공유경제를 넘어서 ‘AI경제’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다른 실리콘밸리 업체도 AI에 뛰어들었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사진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광고주나 사법 집행기관, 학계 등이 개인

의 활동이나 관심사, 인간관계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사진을 찾는 데 이 기술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3년 말 프랑스 출신 유명 인공지능 연구가 안 리콘 뉴욕대 교수를 AI 연구소장으로 영입하는 등 인공지능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수십 억 장의 사진과 태그 데이터 등 페이스북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를 쓸모 있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애플 ‘시리’, 구글 안드로이드 ‘나우’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음성인식 개인비서 ‘코타나’를 출시했다. 코타나와 통합된 검색엔진 빙이나 포스퀘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날씨나 교통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다.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로봇 등 AI를 통한 업무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자사 음성인식 기술 ‘알렉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억 달러(약 1100억원) 규모 ‘알렉사 펀드’를 조성했다. 알렉사는 아마존의 음성인식 블루투스 스피커 ‘에코’의 두뇌 역할을 한다. 사용자들은 에코를 통해 음성으로 아마존에 제품을 주문하거나 음악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자금 조달에 처음 성공한 AI 기업은 16개로, 지난 2010년의 2개에서 급증했다.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총 3억920만 달러로, 2010년의 1490만 달러에서 20배 이상 커졌다.

실리콘밸리는 물론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고 구글에서 이 분야 개발을 이끌었던 스탠퍼드대 출신의 엔드류 응을 영입했다. 바이두는 독일 BMW와 손잡고 올 하반기 무인자동차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도 지난 2월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로봇과 AI에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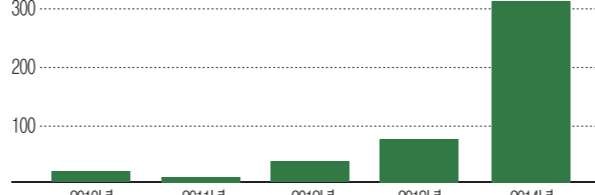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은 지난달 말 미국 보스턴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새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도요타와 화나 등은 AI 관련 자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실리콘밸리 내 AI 스타트업 첫 자금조달 규모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블룸버그



애플 '시리'

구글 '나우'

MS '코타나'

“IoT·AI·스마트로봇, 인류사회 대전환 이끈다”

‘정보혁명’ 손정의에 묻다

“2018년이면 컴퓨터가 인류의 지능을 초월한다. 양자의 관계가 역전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2040년에는 로봇 인구가 인류의 인구를 초과한다. 정보 혁명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일본 소프트뱅크가 파트너사들을 초청해 개최한 ‘소프트뱅크 월드 2015’ 기조연설에서는 이처럼 비장한 전망이 쏟아졌다. 이같이 엄청난 미래를 예견한 이는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다. 4회째인 소프트뱅크 월드의 올해의 주제는 ‘정보 혁명으로, 지금, 다음 세계로!’였다.

단상에 오른 손 회장은 정보 혁명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클라우드 등 3종의 신기로 무장을 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 로봇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IoT=우선 손 회장은 스마트폰이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것처럼 앞으로는 IoT가 인류의 생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IoT, 일상생활 혁신 선도할 듯 의자 앉거나 칫솔로 질병 발견
냉장고 상한 음식은 자동 폐기
2018년 컴퓨터지능 인간 추월
2040년엔 로봇 100억대 공생
은행·회계사 등 사무직 AI로**

현재는 1인당 평균 2개의 인터넷 장치를 소유하고 있지만 25년 후인 2040년에는 1인당 1000개의 장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인구보다 많은 10조 개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돼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모이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연결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발견하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자가 냉장고나 체중계, 칫솔 등 모든 일상과 연결돼 사용자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 냉장고 속 음식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자동으로 폐기하고 다음날 새로운 우유가 배달되게 할 수도 있다. 한 명의 인구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식이다.

▷AI=손 회장은 2018년이면 컴퓨터의

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추월할 것이라고 했다. 컴퓨터의 트랜지스터 수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계속 증가해 3년 후인 2018년에는 사람의 뇌 세포 수인 300억 개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AI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IC칩과 로봇 같은 하드웨어의 성능이 인류의 지능을 넘어선 후 로봇에 심화 학습 기술이 더해져 그 동안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교육시킨 것을 앞으로는 로봇이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호텔 프런트, 회계사 등 사무직의 절반에 가까운 업종과 직종이 30년 안에 AI와 함께하거나 교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회장은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창조적인 활동과 미지의 과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마트 로봇-인간과 로봇의 공생은 가능한 것인가. 손 회장은 정보 혁명이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혁명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언제까지나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인류가 파멸에 이르지 않는 것은 물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공장에서 조립 작업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사랑받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다며 소프트뱅크가 만든 로봇 페퍼를 소개했다. 지난 6월 20일 출시된 페퍼는 인류 사상 감정을 지닌 첫 로봇이다. 소프트뱅크는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기업을 상대로 임대형 페퍼도 출시한다.

손 회장은 “페퍼를 만들 당시, 회사 내에선 무모한 시도라고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결심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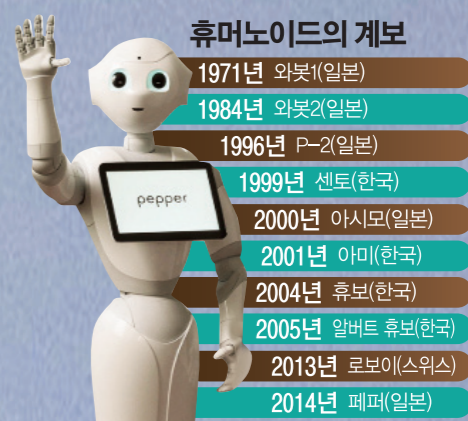
그는 2040년에는 100억 대 이상의 로봇이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그 역사에서 감정을 지닌 로봇의 첫걸음은 페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페퍼, 월 50만원이면 한식구 된다

휴머노이드의 진화

내분비 물질 파악 인간 감정 예측
소프트뱅크 10월부터 렌탈 서비스
‘로보이’ 근골격 사람과 가장 유사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 6월 세계 최초의 감정 인식 로봇 ‘페퍼(Pepper)’를 일반 가정용으로 출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1000대를 한정판으로 내놨는데, 불과 1분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기계에 마음을 부여한다?” 애초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기계에 마음을 부여하는 데에 성공했다.

페퍼는 센서를 통해 얻은 외부 정보를 즉각 분석, 표정 등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 사람의 내분비 물질의 상태를 예측해 상대의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한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탑재해 인식의 정확도를 극대화했다.

앞으로 페퍼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만날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오는 10월 1일부터 페퍼의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달에 5만5000엔, 이미 네슬레 일본과 미즈호은행 등 일부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앞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미즈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영업점의 태도에 분보기가 될 것”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페퍼는 기존의 대면 거래와 함께 인공 지능을 융합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페퍼와 같이 머리 몸통 팔 다리 등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한다. 최초의 휴머노이드는 1973년 일본 와세다대학의 가토 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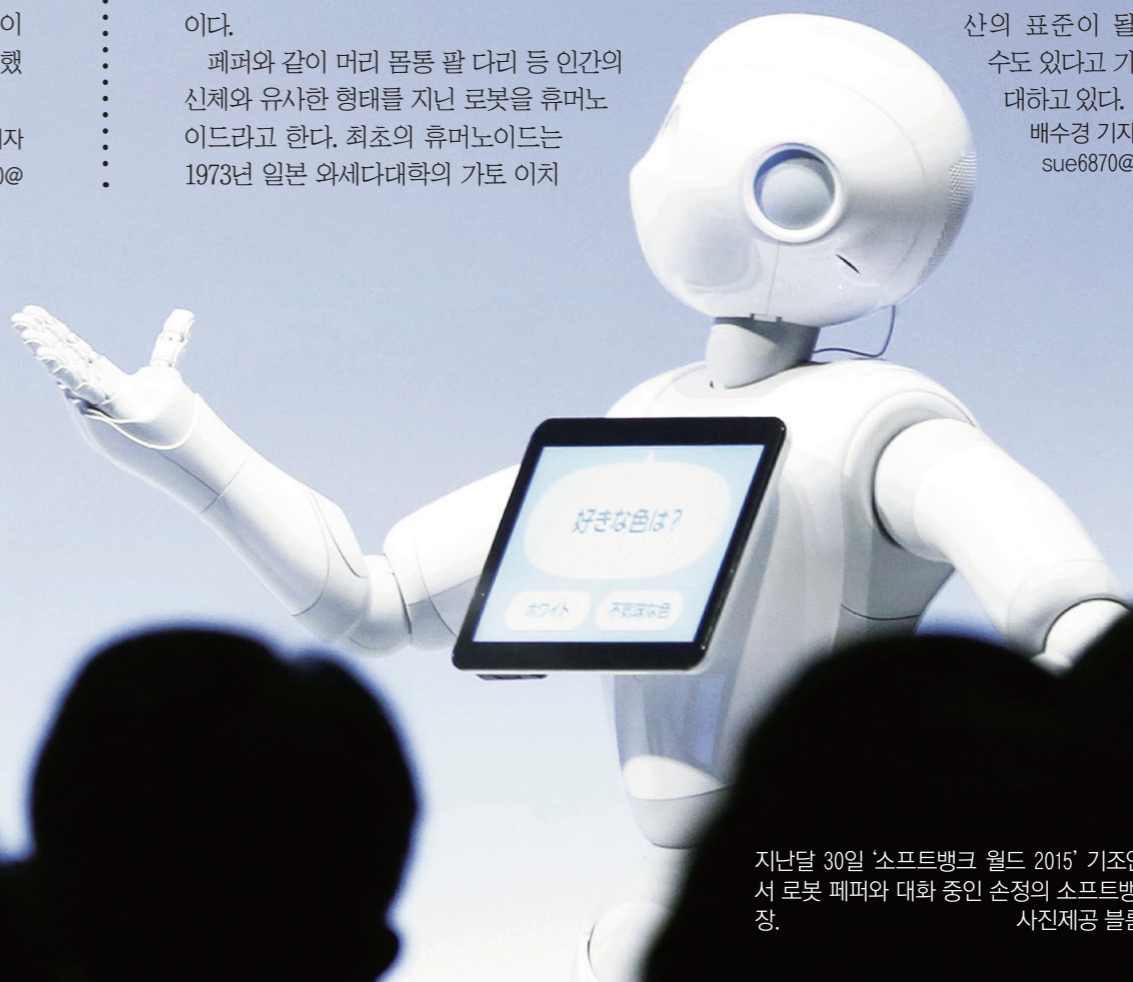
로 교수팀이 개발한 ‘와봇1’이다. 와봇1은 두 발로 걷거나 머리 입력된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도 있었다.

이후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만든 ‘P-2’는 ‘와봇1’보다 훨씬 진화했다. 기존 휴머노이드와 달리 전력시스템과 모터 드라이버, 컴퓨터, 비전 등을 모두 내장했고 인간친화적인 외모까지 지녔다. 게다가 오르내리고 옆걸음, 곡선 보행 등 부드러운 관절운동도 가능했다. 이후 혼다는 시행착오 끝에 2000년 ‘아시모’를 개발했다. 아시모는 P-2, P-3보다 더 진화해, 30여개의 호출 신호를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도 했다. 또한 사람의 얼굴과 음성도 인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인간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닮은 로봇은 2013년 스위스 국제로봇전에서 공개된 ‘로보이’다. 로보이는 스위스의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팀이 만들었다. 키 1.2m에 골격과 근육, 힘줄까지 지녔다. 연구팀은 노인 수발 등 인간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려면 인간과 유사한 구조의 로봇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로보이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로보이는 인간과 인사는 물론 악수도 나눌 수 있고, 호의를 표할 수도 있다. 3D프린팅 기술이 보급되면 대량 생산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지난달 30일 ‘소프트뱅크 월드 2015’ 기조연설에서 로봇 페퍼와 대화 중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제공 블룸버그

스티븐 호킹 “의지 갖고 자립하는 AI, 인류 종말 부를 것”

美앨런인공지능 “AI, 인간 못 따라와”
“컴퓨터가 세계 지배? 어리석은 생각”

커지는 ‘AI 리스크’ 우려

IC칩에서 휴머노이드까지 인류가 개발한 인공 지능(AI)은 과연 인류에 축복인가 재앙인가. 세계적 미래 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의 발전은 불길한 전조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AI가 개발된다면 그런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인공 지능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립하

고 또한 전례없이 같은 속도로 능력을 올려 자신을 재설계할 수도 있다. 천천히밖에 진화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승산은 없다. 일부는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의 능력을 AI가 추월하는 이른바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에 대해 호킹 박사는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칼럼에서 그는 “AI의 발명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최후의 사건이 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우려한 것은 호킹 박사뿐만이 아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모터스의 CEO인 엘론 머스크도 “AI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악마를 부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펜타그램과 성수 손에 넣은 소년이 악마에 맞서는 이야기를 대부분 알 것이다. 그는 반드시 악마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러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를 무조건 재앙으로 보는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애틀의 앨런인공지능연구소의 오렌 예치오니 최고경영자(CEO)는 “나는 AI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들도 두

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0만년 후 기술적 특이점을 맞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명한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종말론적 구상은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분야에서 25년 이상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간이 발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AI가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문자를 읽고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제멋대로 작동할 위험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기술적 특이점 (Technological singularity)
미래학에서 문명의 미래 발전에 가상 지점을 뜻하는 용어다.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변함으로서 그 영향이 넓어져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지점을 뜻한다. 미래 연구에 있어서 인류의 기술 개발 역사로부터 추측해 얻을 수 있는 미래 모델의 정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한계인 사상의 지평선을 가리킨다.

워런 버핏도 산 줄 알았네... '바다위 지상낙원'

슈퍼리치들의 '섬 쇼핑'

글로벌기업 CEO 투자 목적 구입
조니 뎀·디카프리오 사생활 보호용
호날두, 최근 절친 결혼선물로 구매
중국인 600명 자국내 개인섬 보유
피지·투발루 등 '섬 보러' 다니기도

최근 글로벌 슈퍼리치들 사이에서 섬 쇼핑 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가 회장인 그리스 섬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들였다가 소식을 전했다. 버핏 회장의 그리스 섬 매입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오보 해프닝은 많은 이들이 섬 투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유명 배우들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섬을 사들이고 있다. 개인 섬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경영자 중에는 테드 데너 CNN 창립자, 래리 엘리스 오라클 회장, 리저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폴 앨런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립자 등이 있고, 유명배우

중에는 조니 뎀, 에디 머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있다. 여기에 중국 등 아시아 신흥 부호들은 투자는 물론 재력 과시를 위해 뒤늦게 섬 쇼핑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호가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중화권에서는 개인섬보유자협회가 창립되는 등 섬 구매 열풍이 특히 뜨겁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600명의 중국인이 중국에서 개인 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3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선 그리스, 피지, 영국, 캐나다 등의 섬이 경매 매물로 나왔다. 이 가운데 3개는 단 12시간 만에 판매가 완료된 바 있다. 당시 원년성 건축 부호로 알려진 구매자는 그리스의 한 섬을 620만 위안(약 11

억1643만원)에, 캐나다의 섬을 170만 위안에 매입했다.

개인섬보유자협회 창립자인 린동씨는 현재 협회의 회원 수는 53명으로 이 중 3분의 2가 중국인, 나머지가 화교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린씨 역시 9년 전 첫 개인 섬 구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483만 달러(약 54억911만원)를 주고 약 30개 섬을 매입했다. 지난 6월 말에는 린씨를 포함한 약 70명의 중국 부호들은 피지, 투발루, 타히티 등으로 섬 매입을 위한 그룹 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중국 개인사업자)은 구입한 미개발 섬에 별장, 리조트, 모래 해변 등을 조성해 재매각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 값비싼 명품 제품을 통해 자기만족과 부(富) 과시를 내보였던 중국인의 특성상 중국 부호들의 섬 매입이 재력 과시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용으로 섬을 구매하는 부호들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비료회사인 '우랄칼리' 회장을 역임한 드미트리 리볼로프는 지난해 24세가 된 딸 예카테리나 리볼로브레바에게 그리스의 스키포로스 섬을 선물로 사줬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여성 부호로 알려진 웬디 웨이메이 우가 자신이 어머니가 섬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뉴질랜드 북부에 있는 섬을 61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스페인 언론은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자신의 친한 친구의 결혼 선물로 그리스의 섬을 통채로 샀다고 전했다. 다만 섬의 매입 가격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섬이 선물용으로 쓰이며 세계 부호들의 섬 쇼핑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개인 섬 보유 주요 부호 명단

이름	섬 위치	매입규모	매입가	매입시기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그리스 선박왕)	그리스	74	2억	1960년대
테드 데너 (CNN 창립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5500	200만	1979년
리저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영국령 버진제도	74	30만835	1978년
폴 앨런 (MS 공동창립자)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군도	292	1350만	1992년
루이스 베이컨 (우아캐피탈 매니지먼트 창립자)	미국 뉴욕주	445	1100만	1993년
크레이크 맥카우 (맥코셀룰러 공동창립자)	캐나다 밴쿠버	780	1900만	1994년
멜 김슨 (배우)	피지	5400	1500만	2004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	벨리즈	104	175만	2005년
에디 머피 (배우)	비하마	15	1500만	2007년
조니 뎀 (배우)	비하마	45	360만	2009년
래리 엘리스 (오라클 회장)	미국 하와이	섬의 98%	6억(추정치)	2012년
말론 브란도 (배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1433	27만	-

※매입규모(단위: 에이커), 매입가(단위: 달러) ※ 출처: 포브스

하늘에서 내려다본 피지섬. 사진출처 피지관광청 페이스북

Vitamin House

여름,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화제의 와일드망고!

Wild Mango
와일드
망고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분말 함유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와일드망고 제품 모델 유승욱

짹짹한 '섬 테크'

브랜슨 회장 '넥커섬' 37년새 388배 급등 (버진그룹)

테드 터너 '세인트 필립섬' 8배 올라
엘리스 회장 '라나이섬' 관광지로 개발

세계 부호들이 이동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딴 섬 매입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 차원에서 섬을 구매하는 부호에는 래리 엘리스 오라클 회장이 대표적이다. 엘리스 회장은 2012년 미국 하와이 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라나이섬 지분 98%를 매입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금액은 5억~6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구입한 섬은 이미 최고급 리조트 2곳과 골프장 등이 있어 섬 중에서도 비싼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엘리스 회장은 가족단위, 신흥부부 등 모든 유형의 관광객을 섬으로 이끌고자 투자 차원에서 섬을 구매했다. 또 본격

적인 개발에 착수를 위해 '라비 라나이(Love Lanai)'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리저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섬을 산 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스스로 섬의 가치를 높였다. 그는 300여종의 희귀동물들을 섬에서 키우고 발리시 별채 6개 등으로 구성된 리조트를 세우는 등 섬을 자신만의 '낙원'으로 가꿨다. 이에 브랜슨 회장이 1978년에 18만 파운드(약 30만3858달러) 구입한 영국령 버진제도 넥커섬의 현재가치는 1억 달러로 약 388배가 급등했다.

미디어 재벌이자 CNN 창립자인 테드 터너는 1979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세인트 필립 섬을 200만 달러(약 23억3160만원)에 구입했다. 36년이 지난 지금 터너의 섬 가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으로 없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치는 1600만 달러로 매입 당시보다 8배가량 올랐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각국 정부 '섬 쇼핑' 부채질

그리스 구제금융 해결 '눈물의 폭탄세일' 몰디브, 외국인투자유치 목적 소유 허용

각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허니문 천국 몰디브부터 중국 무인도까지 자국 '섬'을 매물로 내놓으며 슈퍼리치들의 섬 매입을 부추기고 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의 도서 국가 몰디브는 외국인에 섬 소유를 허용하면서 부호들의 새로운 '섬 쇼핑' 타깃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몰디브 의회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10억 달러(약 1조167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토지 영구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토지의 70% 이상을 간척을 통해 조성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으며 현재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선 3월엔 중국 산동성의 557개 무인도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당시 산동성 정부는 무인도 판매 대상을 관광, 휴양, 레저, 농업, 임업, 목축업, 공업 등 구매 목적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했다. 즉 단기 투자가 목적이 아닌 장기 투자 목적의 사람에게 섬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유권은 중국 당국이 소유하고 사용권만 매각한다.

섬 쇼핑에 관심을 보이는 부호들에게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단연 그리스 섬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가 자국 섬을 매물을 할당에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달 그리스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간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이 체결됐다. 이에 그리스 정부가



몰디브 섬 전경. 사진출처 몰디브 관광청 페이스북

채권단과 500억 유로(약 64조원) 국유자산 매각에 합의하면서 항만, 우편, 철도, 고속도로, 전력 등이 매물로 나왔고 이 가운데 그리스 해변과 섬도 포함됐다.

지중해와 에게해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지상낙원' 그리스 섬이 매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2012년에도 그리스의 다수 섬은 매물로 나왔다. 당시 막대한 국가부채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졌던 그리스는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초강력 긴축정책으로 세금과 시중금리가 급등했다. 이에 재정적 부담을 느낀 섬 소유주들은 섬 매각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현금 보유와 함께 외국 자본 유입을 원하는 각국 정부와 이색적인 투자를 원하는 세계 부호들의 트렌드가 서로 맞물리며 글로벌 투자시장에 섬 매매 열풍이 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불황을 기회로”... ‘유니클로 성공신화’ 야나이 다다시

“실패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할 거라면 빨리 경험하는 편이 낫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도서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이야기’ 中)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불에 달군 후막 담금질한 쇠처럼 단단하다. SPA 의류 ‘유니클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까지 몇 차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유연한 사고와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90년대 일본경제 침체부터 현재 중국경제 둔화까지 무려 30년 동안 실 틈 없이 위기와 싸워온 야나이 회장에게 ‘불황을 이긴 사나이’라는 표현이 꽤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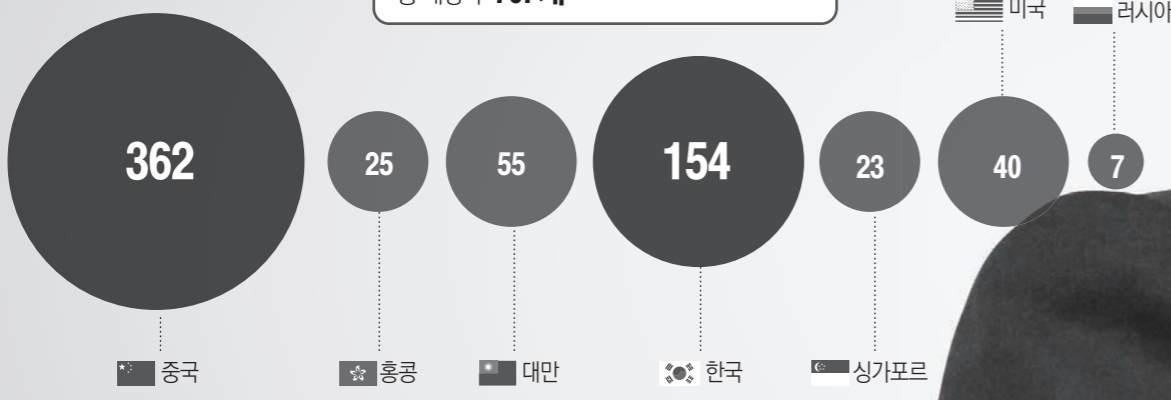
패스트리테일링

설립연도	1963년 5월1일(전신 '오고리상사' 기준)
정규직 수	3만4503명(2015년 2월28일 기준)
납입자본금	102억7300만 엔
발행주식수	1억607만3656주(자사주 포함)
보유 브랜드	유니클로(Uniqlo), 지유(GU), 띠오리(Theory), J-브랜드(J Brand), 프린세스 탐탐(PRINCESSE TAM,TAM) 등

유니클로 해외 매장 현황

단위: 개, 2015년 3분기

순매출액 4136억 엔(2014년 회계연도 기준)
총 매장 수 767개



야나이 다다시는

나이	66세
생년월일	1949년 2월7일
학력	우베고등학교 와세다대학교 (1971년, 경제·정치학 전공)
가족관계	아내, 아들 2장남,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집행 임원 및 링크피어리홀딩스 회장/ 차남, 패스트리테일링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부 임원
연혁	아버지 회사 오고리상사 입사(1972년) 오고리상사 사장 취임(1984년) 오고리상사 사명 '패스트리테일링'으로 변경(1991년)
현직위	패스트리테일링 회장 겸 CEO 유니클로 회장 겸 CEO 유니클로 세컨드 브랜드 '지유(GU)' 회장 소프트뱅크, 니폰벤처캐피탈 사외이사

◇일본 잃어버린 10년-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기회를 찾다 = 야나이 회장의 유니클로 성공 신화는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나이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고 1984년 일본 히로시마에 유니클로 1호점을 개설했다. 당시 유니클로는 생산비용 및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옷을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은 온통 유명 브랜드에 쏠렸다. 그러다보니 '값싼' 유니클로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야나이 회장은 시대에 어긋난 경영 방식으로 시장에서 잊히는 듯했다.

그러나 야나이 회장은 1991년 기업의 사명을 '오고리상사에서 '패스트리테일링'으로 바꾸며 의류 시장을 평정하겠다는 의지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야나이 회장은 첫 번째 위기가 기회로 찾아왔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며 침체되고, 기업들이 파산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야나이 회장은 불황 속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산층, 서민 구분없이 소비심리는 최악으로 위축됐다. 그때 저가 정책을 펼친 유니클로가 주목받은 것이다.

야나이 회장은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난방비를 아낄 것으로 판단해 보온용 의류 '플리스'를 기획했다. 플리스를 착용했을 때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싸구려' 인식에 초기엔 외면 받아
일 '잃어버린 10년' 침체기 틈새공략
난방비 아끼는 옷 '플리스'로 대박
'히트택' 등 글로벌 히트상품 개발

플리에틸렌을 부드럽게 만든 원단으로 사용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플리스는 1998년 200만장, 1999년 850만장, 2000년에 2600만장이 팔리면서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8년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산산조각 냈을 때도 유니클로는 또다시 공공연히 소비심리를 과고들었다. '제2의 플리스'로 불리는 히트택을 선보이면서 승부사 기질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소재 개발을 중시한 야나이 회장은 일본 최대 섬유화학 업체로 꼽혔던 도레이를 직접 찾아가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1만벌이 넘는 샘플을 만들고 찢기를 반복한 결과 인체에 발생하는 수증기를 열에너지로 변환해 발열하는 원리를 적용한 초경량 신소재를 공동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히트택은 전 세계에 1억장이 넘

원자재 수입하던 중국시장 역진출
윌트디즈니와 손잡고 총력전 펼쳐
올 매출 3000억엔으로 높여 잡아
년 100개 오픈 3000개 매장 목표

게 팔리면서 베스트셀러 라인으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야나이 회장은 2011년 도레이와 함께 자외선을 90% 차단하는 기능성 라인 'UV-CUT' 콜렉션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의 불황도 뚫는다... 경기침체 중화권 매출 3000억 엔 목표 = 야나이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도 손발 들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또다시 유니클로 신화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의류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유니클로는 중국 천펑그룹과 합작해 '언샤오 패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후 유니클로는 상하이에 2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그러나 이미 저가형 브랜드에 익숙해져 있던 중국 소비자들에게 유니클로의 구매 매력도는 높지 않았다. 야나이 회

장이 3년 만에 중국시장 철수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야나이 회장은 물러나지 않고 중국사업 담당을 교체하는 등 현지화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지사업 대표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에 제품 고급화·다양화, 진철한 일본식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시장 공략 전략을 바꾼 결과 중국시장은 효자 시장으로 떠올랐다.

이에 최근 중국 경제성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유니클로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판매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은 중국 사업을 한층 성장시키고자 미국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업체인 윌트디즈니와 업무 제휴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디즈니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의류 및 제품을 공동으로 디자인할 방침이다.

이달 유니클로는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을 전년도 2080억 엔에서 3000억 엔으로 설정했다. 현재 중국에는 약 370개 매장이 있으며, 연간 100개의 매장을 새로 오픈해 최종 3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후계자는 누가?

전문경영인 영입 실패로 복귀 전력
“가족 승계 안하겠다” 말해왔지만
최근 “두아들에 회장·부회장” 언급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동안 야나이 회장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5년 전 야나이 회장이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경영을 하게끔 하고 싶지 않다. 단, 두 아들이 회사의 지분 10%를 가진 만큼, 이사회 일원으로서만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야나이 회장은 경영승계를 꺼리는 이유로 “모든 산업에서 가족승계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만약 아주 쉽게 아들이 회사 대표가 된다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은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들어 야나이 회장의 이 같은 경영 방침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야나이 회장은 지난 2002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다마스카 겐이치(현 로스그룹 CEO)에게 회사를 맡겨 외부 경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 실적 둔화로 3년 만에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 외부인 고용을 한 번 실패한 적이 있다.

벌써 올해 66세인 야나이 회장이 아직 후계자를 찾지 못한 만큼 자식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예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장남 야나이 가즈무미는 2011년 링크피어리홀딩스의 회장 겸 사장으로 취임한 그 다음해에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집행임원이 됐다. 차남인 야나이 고지는 2011년 9월 패스트리테일링에 입사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부에 배치됐다.

링크피어리는 의류 브랜드 '띠어리(Theory)'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패스트리테일링의 굵직한 자회사 중 한 곳이다. 골드만삭스에서 경제 감각을 익힌 장남 가즈무미가 경영일선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야나이 회장은 작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들의 장래 처우에 대한 질문에 “각자 회장과 부회장 같은 일을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반대로 유니클로가 지금보다 더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야나이 회장과 같은 혁신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춘 CEO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야나이 회장의 성공 원동력은

“실패를 밑거름으로” 무한도전 정신

“라이벌을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한다. 내가 독립한 이유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라이벌을 뛰어넘기 위해서다.”

야나이 회장은 지난 1999년 아버지 추도사를 통해 도전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냈다. 야나이 회장의 아버지는 야나이 회장에게 옷가게를 물려주면서 “1등이 돼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야나이 회장은 그때부터 가슴속에 '1등'이란 단어를 새겼고, 아버지란 커다란 산을 넘으려고, 전 세계 의류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도전해왔다.

야나이 회장의 첫 번째 도전은 아버지가 운영했던 신사복 옷가게를 원자재 수입-제작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로 꼽을 수 있다.

야나이 회장은 아버지를 따라 갑작스럽게 대(代)를 이어 옷가게를 운영하게 된 후 우연하게 태국을

방문하게 됐다. 태국 의류시장을 조사하고자 직접 발품을 판 것이다. 당시 야나이 회장은 태국 현지 시장에서 중국산 옷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유통환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저렴한 원자재를 직수입해 옷을 제작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십 년간 아버지가 이끌어온 경영 방식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었던 시도가 결국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 방식도 과격적으로 바꿨다. 지금의 유니클로 전신인 '유니크로딩웨어하우스(Unique Clothing Warehouse)'를 운영했을 당시 일본 옷 매장은 보통 오전 10시에 개점했다. 그러나 야나이 회장은 오전 6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주 고객층인 젊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그렇다고 야나이 회장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올린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해외 매장을 개설하며 호기롭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으나 실패를 맛보야 했다. 야나이 회장은 당시를 “화려하게 실패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유니클로는 영국에 21개의 매장을 오픈했으나 불과 2년 만에 16개 매장을 폐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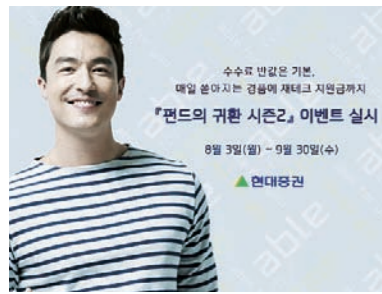
야나이 회장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02년 의류업과 전혀 다른 야채사업에 관심을 돌렸다.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시도한 사업으로, 당시 식품기업 류쿠엔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야나이 회장의 계획은 식품을 공동 구매하고 공동배송하는 유통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 20년 가까이 성공

가도를 달렸던 야나이 회장이 새로운 사업 활로를 찾기 위해 또다시 모험심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야나이 회장은 훗날 “식품업에 뛰어들어 이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토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사업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결국 야채사업은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놀랄 만한 성과와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 등 회로 에라를 모두 겪은 야나이 회장은 지금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인으로 자리 잡았다.

야나이 회장은 포브스가 발표한 '2015 억만장자' 중 일본인 가운데 1위(202억 달러)를 차지해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CEO(141억 달러)를 제쳐 다시 한번 영향력을 과시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수수료 반값 111만원 지원금...

현대증권 '펀드의 귀환 시즌2'

현대증권은 able 펀드마켓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테크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펀드의 귀환 시즌2'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 고객을 위한 이벤트로 앞서 성황리에 마감된 '펀드의 귀환' 후속 이벤트다.

새로 선보이는 시즌2 이벤트는 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3Go로 구성된다. 먼저 1Go는 able 펀드마켓을 통해 펀드를 매수하거나 이동하면 수수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Go는 able 펀드마켓으로 10만원 이상 동일 펀드를 매수 또는 이동하면 매일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Go는 순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111만원의 제테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able 펀드마켓(홈페이지/HTS/스마트폰)을 통해서 펀드를 매수 또는 이동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규 현대증권 스마트마케팅부장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만큼 초저금리 국면에서 다양한 펀드 상품이 현명한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며 "금번 이벤트는 합리적인 수수료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1석2조의 기회"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中 펀더멘털 양호...버블이 기회”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 간담회

3500P 저점으로 상승 가능성... 4500P 돌파할 것
시장 안정 위한 정부 개입 당연한 조치... 성장통 중
시총은 꾸준히 늘어 주가 지수에 휘둘리지 말아야

최근 중국 증시가 잘못된 신용거래에 대한 마찰적 요인에 의한 급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며 3500포인트를 저점으로 45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 판단한다.

유안타증권 서명석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해 "중국의 펀더멘털 요인과 성장 스토리를 분석한 결과 3500포인트를 저점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 대표는 "중국 증시는 급락 이후 금리 인하만으로는 주가 하락을 잡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IPO 중단을 결정하고 연기금을 통한 주식 매수, 증시 안정 기금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서구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한 서 대표에 따르면 1964년 일본은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 시총의 5.1%까지 주식을 매수했다. 한국도 1989년 재무부가 발권력

을 이용해 무제한 주식 매수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08년 미국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지시했다. 유럽 역시 2010년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유동성 공급을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했다.

그는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은 당연한 조치이며 중국 주식시장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 중국 증시가 끝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증시가 버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버블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국내의 경우도 IT버블 후 네이버가 등장했고, 중국도 2007년 주가 버블 후 G2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버블은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 새로운 기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수상징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의 발전은 지수의 절대 수준보다는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 증시 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총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서 대표는 "한국의 경우 고성장 국면이 마무리되는 2000년대 들어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국도 지수가 정체되는 국면에서도 시장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별종목 중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있다"며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 지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성장 스토리를 주도하는 핵심종목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현 기자 yhssoo@

NH증권 "자기매매 수익, 성과금 제외"

과다하면 고객관리 소홀

임직원 평가서도 빼기로

NH투자증권이 고객 가치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WM사업부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실적과 발생수익을 평가 및 성과급 산정 시 제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WM사업부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시키는 현재 제도도 자기매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할 경우 고객관리 소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증권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객신뢰 저하로 판단하고, 고객 가치 향상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올해 초부터 고객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고객수익률 평가를 확

대 도입하고 WM사업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한층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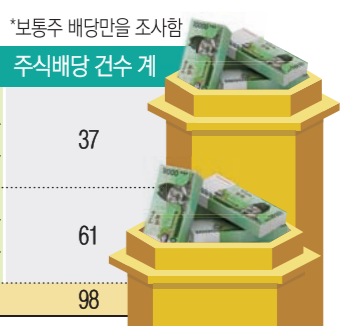
합종옥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고객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현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합동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총 58개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신고 임직원은 3만1964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86%에 달하며, 국내 증권사의 일 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의 0.1회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영 기자 moon@

2012~2014년 상장사 주식배당* 현황

시장 구분	내용	2012년			2013년			2014년			주식배당 건수 계
		실시 기업 수	배당 실적 기업 수	비율	실시 기업 수	배당 실적 기업 수	비율	실시 기업 수	배당 실적 기업 수	비율	
유가증권	주식배당 실적 기업 수	9	13	15	15	15	15	15	15	37	
	배당 실적 기업 수	490	475	496	490	475	496	490	475		496
	비율	1.8%	2.7%	3.0%	1.8%	2.7%	3.0%	1.8%	2.7%		3.0%
코스닥	주식배당 실적 기업 수	22	19	20	22	19	20	22	19	20	61
	배당 실적 기업 수	452	438	479	452	438	479	452	438	479	
	비율	4.9%	4.3%	4.2%	4.9%	4.3%	4.2%	4.9%	4.3%	4.2%	
주식배당 건수 계		31	32	35	31	32	35	31	32	35	98



코스닥 기업 주식배당 유가증권보다 적극적

지난 3년간 코스닥서 32곳

유가증권시장은 18곳 그쳐

코스닥 상장사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보다 주식배당에는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배당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주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전후 자기자본 규모는 같다. 현금배당과 달리 배당 후에도 유동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2~2014년 사업연도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주식배당을 한 회사는 3년간 50개사로 총 98건의 주식배당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8개 회사에서 37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32개사에서 61건의 주식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비율은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3년간 3%이하였지만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항상 4%를 상회했다.

횟수별로는 지난 3년간 1회만 주식배당을 실시한 곳은 23개사, 2회 실시한 기업은 6개사, 3회 실시한 기업은 2개사였다.

한편 지난해 주식배당을 실시한 35개 회사의 이익배당총액 중 주식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이익배당총액 전부를 주식배당으로 지급한 기업이 1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0~20% 미만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9개사, 20~40% 7개사, 40~60% 4개사, 60~80% 2개사로 나타났다.

정다운 기자 gamja@

운용업계 PEF 강화... 기관투자자 공략 나섰다

한화, 인베스트먼트 PE사업부 인수
삼성, 2000억 규모 '프라이빗...' 설립
브레인, 각자대표제체 전환 PEF 눈독

운용사들이 PEF(사모펀드)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PEF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는 운용사는 삼성운용, 한화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등이 꼽힌다.

실제 한화자산운용은 최근 프리 IPO를 추진 중인 두산인프라코어벤처홀딩스의 8000억원 자금 모집을 완료하고 이날 중순 펀드 등록 등을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이번 박켓 프리IPO의 주요 투자자로는 한화생명,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메리츠증권 등이 참여한다. 이번 프리 IPO 펀딩의 성공적인 자금조달은 한화운용 PE 본부가 주선했다.

앞서 한화운용은 지난 6월 사모펀드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해 한화인베스트먼트의 사모펀드 운용 사업 부문을 67억원 규모에 인수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최근 케이만군도에 해외 PEF 투자전용 재간접 역외펀드를 등록하고 글로벌 기관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케이만군도에 삼성운용을 비롯해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100% 출자한 2000억원 규모의 '삼성프라이빗에쿼티메

니저원' 펀드 설립을 마무리했다. 삼성운용이 PEF투자 사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지펀드의 강자인 브레인자산운용도 최근 송성업 선임 대표를 맞아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PEF 등 신사업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송 선임 대표가 자산운용과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박건영 현 대표는 해외시장, PEF 등 신사업 발굴과 증장기 성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PE부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운용사는 단연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미래에셋PE는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제1호 PEF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총 2조원 규모를 운용하고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10만 재테크 초보가 증명한 주식투자입문 베스트셀러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완전개정판 전격 출간!

주식투자입문 베스트셀러 1위

완전 개정판

1% 저금리시대, 내 월급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책!

- ▶ 주식 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 단계별 서킷브레이크 등 2015년 바뀐 新주식거래제도 반영!
- ▶ 주식투자로 시작해 경제공부로 끝나는 알찬 내용!

한빛비즈 블로그 www.hanbitbiz.com / 페이스북 hanbitbiz.n.book / 트위터 @hanbitbiz / 전화 02-325-5508 / 팩스 02-326-1566

왜 사람들은 지금 "지대넓얕"에 열광하는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온오프라인 전 서점 27주 연속 베스트셀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 읽고 나면 똑똑해지는 듯한 이 느낌 _ 동아일보
- 점잖은 인문서 시장에서는 전례가 없던 파격 _ 국민일보
- 인문 입문서로 100점 만점에 100점인 책 _ 상근닷컴
- 지식과 정보의 홍부 속에 길을 찾아주는 지도 _ sulanara 님
- 지식인들의 권위에 도전해보는 지식 대화록 _ 부앙 님
- 똑똑한 척 좀 해볼까 읽었다가 진짜로 똑똑해졌다 _ nore000 님
- 인문학 지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부 욕구가 샘솟는다 _ jlboy 님



멤브레인 접수한 시노펙스... 하반기 실적 기대되네



조정된 멤브레인 잇단 국산화 성공... 수소차 부품도 진행 내달 의료기기 분야 납품... 바이오 분야도 연말 진출 준비 김천에 고성능 생산기지 구축중 포항기지도 확장 이전 추진

시노펙스가 하반기부터 의료,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멤브레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시노펙스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의료기기 분야 멤브레인 납품을 시작하며, 연말로 예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멤브레인

시장 진출 역시 순조롭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고성능 멤브레인 전문 생산기지를 김천에 구축 중이다. 포항에 위치한 산업용 멤브레인 생산기지 역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하면서 멤브레인 사업이 시노펙스 실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노펙스는 산업용 멤브레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끝에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의료, 바이오, 식품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조정된 멤브레인 국산화에 잇달아 성공했다. 또 우수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산화 의뢰를 받아 개발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특히 시노펙스는 미래 국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소차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멤브레인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시장영역을 고성장,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시노펙스 관계자는 "당사 멤브레인 사업은 현재 연평균 20%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의료용 멤브레인 시장 진출 성공과 바이오, 수소차 멤브레인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가시화 하면서 내년부터는 연간 50%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노펙스는 현재 매출액 150억원 규모의 멤브레인 사업을 2020년 7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1조원 규모의 멤브레인 시장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씨그널엔터, 드라마 제작사로 성공적 자리매김

SBS 특집극 '에이스' 호평 하반기 드라마 제작 집중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 새롭게 제작한 단막극이 호평을 받으며 드라마 제작사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에 나서고 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송된 SBS 특집극 '에이스'(김루리 극본, 김진근 연출)는 2.7%(전국 기준, 이하동일)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에이스'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배우 이필모, 서민지, 지은성, 오수민 등이 출연했다. '에이스'는 예능프로그램 '쌈쌈녀'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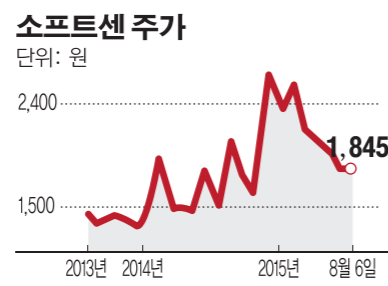
영으로 편성된 특집극이지만, 차별화된 소재와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어 단막극의 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 12부작으로 구성되는 이번 단막극은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 제작한 KBS 2TV 드라마스페셜 2015의 '웃기는 여자',

'머리 심는 날', '바람은 소망하는 곳으로 분다', '가만히 있으라' 이후 제작하는 드라마이다. 씨그널엔터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드라마 제작사 에스박스미디어를 합병해 기획력을 확보했으며 KBS 드라마스페셜과 SBS 단막극 시리즈를 발판으로 하반기는 미니시리즈 및 주말드라마 제작에 집중할 예정이다. 씨그널엔터 관계자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이번 단막극 시리즈 제작을 통해 총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참신한 소재의 작품을 발굴 제작해 드라마 제작사로서 씨그널엔터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소프트센 '수요연계형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참여

KT·삼성전자 등 24곳 참여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구축

빅데이터·헬스인포매틱스 전문기업인 소프트센이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사업 과제'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수요-공급 연계형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국민 생활 복지 증진과 국내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국제표준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 구축 및 실증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이 있다. 특히 플랫폼이 구축될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에는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성사업에는 주관 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센터 외에 KT, 삼성전자, 경북대학교 등 7개 참여 기관과 대구시 및 지역 대학병원, 소프트센을 포함한 헬스케어 관련 기업 등 총 24개의 협력 기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대구 실증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병원·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수요기관과 의료 관련 업체 등 공급기관 클러스터가 형성된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요-공급 직접형 헬스케어 선 순환시장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래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만성질환 노년층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센 관계자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번 사업에서 소프트센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분석알고리즘과 초기 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능 검증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당시의 연구진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코닉글로리, 日 무선보안시장 진출

iTUS 재팬과 'AIRTMS' 협약 세계서 가장 빠른 무선해킹 차단 진입 노력 2년만에 결실 맺어

코닉글로리가 지난 4일 일본기업 iTUS Japan과 일본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시장 진출을 위한 'AIRTMS'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무선보안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코닉글로리의 AIRTMS는 무선 Wi-Fi를 사용하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통신을 시도하는 AP(무선장치)를 유선 장치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탐지하고 차단

하는 무선보안솔루션이다. 특히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802.11ac환경에서 무선 해킹의 침입탐지 및 차단기술을 구현해 제품으로 출시됐고, 자체 스마트센서 특기기술이 적용된 WIPS 제품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탐지 및 차단속도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코닉글로리는 이미 공급 중인 유선보안 제품인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TMS)에 이어 AIRTMS를 통해 진입 노력 2년만에 일본 무선보안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코닉글로리 관계자는 "일본의 무선보안 시장은 한국보다 2년정도 늦게 시장이 열리는 초기 시장"이라며 "아직까지 일본시장에 소개되는 글로벌기업들의 WIPS 제품은 802.11ac 기능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802.11a/b/g/n 통신망까지만 탐지 및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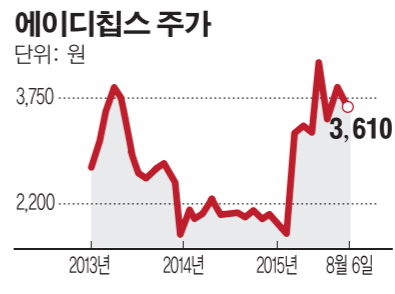
단이 되는 제품들이다"고 말했다. 일본 통신 시장은 무선기기의 증가와 함께 통신 데이터의 처리량과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속 무선랜 통신망 환경 속에서 정보보안의 취약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닉글로리는 한국 시장에서 제품기술력을 충분히 검증 받은 제품인 AIRTMS를 일본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보다 앞선 제품 경쟁력으로 일본 무선보안 시장을 한층 도약시키는 회사가 될 계획이다. 또한 코닉글로리는 AIRTMS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협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무선 보안시장은 한국 시장이 가장 빠르게 열리는 시장으로 한국시장에서 검증 받은 AIRTMS를 일본과 중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에이디칩스, 추가 자금조달 나서 최대주주 변경에도 CPU 강화

공시돌보기

경영 정상화 위해 유증 계획 권기홍 대표 지분매각 불구 CPU 부문 계속 전담기

에이디칩스가 최대주주 주식양수도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CPU(중앙처리장치)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에이디칩스에 따르면 에이디칩스는 다음달 14일 임시주총 이후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에이디칩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1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으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 방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CB)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항후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CPU 사업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을 통한 이익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금 규모는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현재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이디칩스 측은 CPU 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대규모 지분 매각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난 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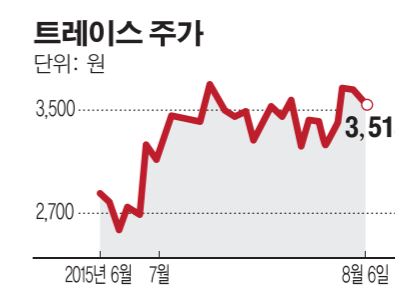


홍 대표가 CPU부문을 지속적으로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지난 7월 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90만주 중 48만주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코스닥 상장 이래 15년간 유지해오던 최대주주의 자리를 내려 놓았다. 권 대표는 이와 관련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주님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며 "에이디칩스의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내려 놓았지만 회사가 추구하고자 했던 CPU전문업체로 발돋울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국산CPU개발사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까지의 어려웠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시주총에서 새롭게 구성될 경영진과 함께 또한 새로운 추가되는 목적사업 등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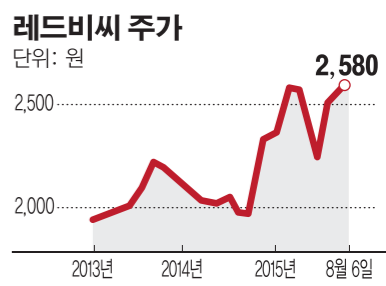
트레이스, 디멘터와 中 IoT 시장 진출

아파트 스마트홈 인증 서비스 모바일 결제 투명지문인식 구축

트레이스가 디멘터와 손잡고 중국의 고급아파트들을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용 지문인식 및 그래픽 인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사용자 인증 시장으로 트레이스의 투명지문인식과 디멘터의 그래픽 인증제품 공급을 공략하기로 했다. 이번 중국 진출은 중국 후아메이홀딩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 항저우의 를 기반으로 상해 등지의 고급아파트 단지 1만세 이상에 스마트홈 기기용으로 트레이스의 투명지문인식과 디멘터의 그래픽 인증을 융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멘터와 중국 후아메이홀딩스가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하기로 한 가운데 후아메이홀딩스와 현지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현지 스마트홈 시장과 알리페이, 텐센트 등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으로 트레이스의 투명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레이스의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의 각종 버튼과 이미지를 누르면서 동시에 지문인식이 실행되는 당시의 T-SEC이 그래픽 인증과 융합되면서 핀테크 보안인증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하는 독보적 제품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스마트홈 진출을 계기로 2020년 전세계적으로 1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IoT보안시장으로 실적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이미 알리페이와 텐센트 등에서 큰 관심을 가진 데 후아메이홀딩스와 현지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현지 스마트홈 시장과 알리페이, 텐센트 등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으로 트레이스의 투명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레드비씨, 상장 후 대박 영업이익 72%↑ '최대실적'

통합보안솔루션 전문기업 레드비씨가 코스닥 시장 입성 후 첫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6월말 결산법인인 레드비씨는 지난해 매출 199억 9438만원, 영업이익 41억 5803만원, 순이익 34억 8780만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0.2%, 72.2% 증가했으며, 합병비용 7억 5787만원이 반영된 순이익은 52.5%가 늘었다. 레드비씨는 보안업계의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상반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레드비씨의 이러한 성과는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레드비씨의 대표 서버보안 솔루션인 '레드캐슬(Red Castle)'의 잇따른 공급과 지난해 출시한 '오스캐슬(Auth Castle)'의 판매 확대로 서버보안 사업 매출이 3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응용보안 사업에서는 모회사인 SGA가 지난해 진출한 교육SI사업에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사업적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 부문 신사업인 샵(메일)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총 4억 규모의 샵(메일) 서비스 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에이티테크 '합병 효과' 상반기 순이익 22.5억

에이티테크놀러지가 올해 1분기에 이어 상반기 호실적 실현에 성공했다. 에이티테크놀러지는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상반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7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8억 5500만원, 당기순이익은 22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에이티테크놀러지 측은 이번 반기까지의 누적매출액이 지난해 매출액인 64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테스트코아 합병을 통한 반도체 부문 및 인터페이스 부문을 강화해 매출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분기 매출액은 35억 4800만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대비 93.2%로 크게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억 4100만원, 13억 1800만원을 기록해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를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흑자 시현에 성공했다. 문선영 기자 moon@

